

벡델데이 2020

09.01~09.07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사단법인 한국영화감독조합

2020 벡델데이 자료집

사단법인 한국영화감독조합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46길 18, 302호
02-6080-4422
dgk.office@hanmail.net

https://www.dgk.or.kr

01 벡델데이 2020 사업개요 및 소개 5

사업 배경 6

사업 목표 및 내용 7

참여 인력 8

협력업체 및 참여 인력 9

아이덴티티 10

벡델데이 기준 10

시그니처 컬러 및 로고 11

포스터 12

02 벡델초이스 및 벡델리안 선정 14

벡델초이스10 16

벡델초이스 본심 16

벡델초이스 본심 심사 목록 16

벡델초이스10 18

벡델리안 28

03 벡델데이2020 홍보 · 마케팅 30

홍보·마케팅 32

보도자료 배포 32

소셜미디어 계정 운영 32

온라인 아카이브 활용 33

공식 굿즈 이벤트 33

홍보·마케팅 결과 34

언론 보도 34

방송 35

소셜미디어 35

04 벡델데이2020 행사 36

벡델데이2020 행사 38

개요 38

사전준비 38

심포지엄 “한국영화, 벡델 테스트와 만나다” 39

라운드테이블 “벡델리안과 차별 없는 영화를 말하다” 40

벡델데이2020 관객 반응 42

<방구석1열> 벡델데이2020 특집 43

부록 01 심포지엄 발제 자료 I 44

부록 02 심포지엄 발제 자료 II, III 56

부록 03 벡델데이2020 현장 대본 66

부록 04 보도 자료 76

NEW RULE.

PRETTY STRICT,
BUT
A GOOD IDEA.

Alison Bechdel

| 사업 배경

| 사업 목표 및 내용

참여 인력
협력 업체 및 참여 인력

| 아이덴티티

벡델데이 기준
시그니처 컬러 및 로고
포스터

벡델데이
2020

01

벡델데이2020
사업개요 및 소개

사업 배경

명칭 **벡델데이2020**
행사기간 **2020.09.01~09.07**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영화감독조합**

벡델데이2020이 이름을 가져온 '벡델 테스트(Bechdel Test)'는 영화에서 양성평등을 가늠하는 지수로, 미국의 여성 만화가이자 커밍아웃한 레즈비언 작가인 앨리슨 벡델(Alison Bechdel)이 『경계해야 할 레즈비언(Dykes to watch out for)』(1985)에서 처음 언급한 내용이다. 벡델 테스트의 기준은 간단하다. 첫째, 영화 속에 이름을 가진 여성 캐릭터가 최소 두 명 나와야 하고 둘째, 이들이 서로 대화를 나눠야 하며 셋째, 그 대화 내용이 남성 캐릭터에 관한 것만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간단한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영화가 상당수인 것이 현실이다.

벡델 테스트는 2016년 문화계 내 미투 운동으로 촉발된 '여성주의 물결'과 함께 한국 문화계에도 소개되었다. 하지만 영화산업계 및 관객 일부에게만 알려졌을 뿐 널리 통용되어 온 개념은 아니었다. 한편, 한국영화감독조합 소속 감독인 <벌새>의 김보라 감독은 영화제를 통해 전 세계 평론가와 관객을 만나는 중에 앨리슨 벡델과 직접 소통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후 김보라 감독은 앨리슨 벡델의 요청에 따라 그와 긴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이는 단행본 『벌새』에 수록돼 국내에 소개되면서 벡델 테스트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 최초 여성인권선언문인 '여권통문'의 발표일인 9월 1일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것을 기념해 올해부터 기존 7월이었던 '양성평등주간'을 9월 첫 주로 변경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일상은 물론 '문화·예술 분야 내의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한국영화감독조합과 함께 문화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다.

'영화와 양성평등'을 설명하는 데 벡델 테스트만큼 적확한 개념이 없다는 판단 아래, 한국영화감독조합은 앨리슨 벡델에게 용어 사용에 대한 허락을 구해 '벡델데이'라는 명칭을 만들어 냈으며, 본 행사가 연례 행사로 자리잡는 것을 목표로 올해 '벡델데이2020'을 론칭하였다. 또한 벡델 테스트가 35년 전에 고안된 개념인 것을 감안, 양성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보다 정교한 기준을 별도로 수립하였다.



사업 목표 및 내용

우리나라 최초 여성인권선언문인 '여권통문'의 발표일인 9월 1일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것을 기념해 '양성평등주간'이 기존 7월에서 9월 첫 주로 변경된 첫 해인 2020년에 '양성평등과 문화'의 만남을 꾀함으로써 양성평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대중문화의 대표격인 영화를 통해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보편화하며, 한국영화 내의 양성평등을 돌아봄으로써 문화다양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① 벡델초이스10 및 벡델리안 선정

양성평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

앨리슨 벡델이 고안한 '벡델 테스트'를 대중에게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성평등에 기여한 영화인 '벡델초이스10'과 영화를 통해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영화인인 '벡델리안'을 선정하였다.

② <방구석1열> 벡델데이2020 특집 방송

대중문화의 대표격인 영화를 통해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보편화

보다 많은 이에게 '양성평등주간'을 알리고 '문화 콘텐츠 내의 양성평등 재현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중 인지도가 상당한 TV 프로그램인 <방구석1열>(JTBC)에 '벡델데이2020 특집'을 편성·방송하였다.

③ 벡델데이2020(심포지엄 및 라운드테이블) 개최

한국영화 내의 양성평등을 돌아봄으로써 문화다양성 향상에 기여

영화산업계 내에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하나의 화두로 제시해 영화 내적·외적인 부분에서 보다 성평등한 영화 제작을 독려하기 위해 이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과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10여 년간의 한국 영화산업을 양성평등의 시각으로 돌아보고 개선책 등을 현장 영화인들과 토론함으로써 영화가 문화다양성 향상을 위해 해야 할 몫을 고민하였다. 해당 심포지엄과 라운드테이블은 네이버 V 라이브로 방송함으로써 보다 많은 이와 해당 문제에 대해 의견 교환을 하는 장을 마련하는 데 힘썼다.

사업 목표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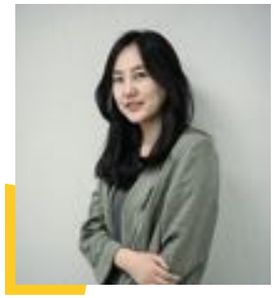
참여 인력



조직위원장
민규동 감독



집행위원장
변영주 감독



프로그래머
이화정 기자



프로그래머
주성철 기자



집행위원
문시현 감독



집행위원
박현진 감독



집행위원
이윤정 감독



집행위원
진모영 감독

코디네이터 **박아녜스**
DGK 사무국 **최우리, 양상헌**
문화체육관광부 **조아리, 이안진, 김수민**

협력 업체 및 참여 인력

벡델데이2020 방송 **네이버 손영희**
벡델데이2020 촬영 **세븐시스템 정진회, 이영준, 한상일, 김정민**
벡델데이2020 편집 **세븐시스템 안중건, 김가영, 이미숙**
벡델데이2020 예고편 등 영상 제작 **DGK 성시흡**
벡델데이2020 음향 **CJ아지트 이지웅**
벡델데이2020 조명 **CJ아지트 김정은**
벡델데이2020 현장 스틸 **채동우**
홍보 플래닛(Planit) **김종애, 최주영, 이주리**
포스터 및 시그니처 디자인 **스푸트닉 이관용, 김다슬**
굿즈 디자인 **스튜디오 로그 백지은**
벡델데이020 자료집 편집·디자인 **정혜지**

BECHDEL DAY 2020

아이덴티티

① 벡델데이 기준



벡델데이2020 기준 수립

벡델데이2020 기준 수립

벡델 테스트가 1985년 고안된. 양성평등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인 점을 감안해 기존 벡델 테스트에서 네 가지의 기준을 더한 벡델데이만의 고유한 기준을 새로 수립하였다. 다만 일곱 가지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영화가 극소수인 점을 감안, '양성평등'의 기본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영화의 경우 ① 기존 벡델 테스트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② 나머지 네 가지 기준 중 일부를 충족하는 것을 인정하였다.

벡델 테스트 기본 기준

① 영화 속에 이름을 가진 여성 캐릭터가 최소 두 사람이 나와야 할 것
② 1번의 여성 캐릭터들이 서로 대화를 나눌 것
③ 1번과 2번 캐릭터들의 대화 소재나 주제는 남자 얘기가 아닐 것

벡델데이2020 추가 기준

④ 영화 제작 과정에서의 양성평등 지향을 위해 감독, 제작자 시나리오 작가, 촬영감독 중 1명 이상이 여성 영화인일 것
⑤ 여성 단독 주인공 영화이거나, 여성 단독 주연이 아닐 경우 여성 캐릭터의 역할과 비중이 남성 주인공과 동등할 것
⑥ 여성 캐릭터가 성별 정형화와 고정 관념에 갇힌 스테레오타입으로 재현되지 않을 것
⑦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적 시선을 담지 않을 것

② 시그니처 컬러 및 로고

벡델데이 시그니처 개발

벡델데이 론칭에 맞춰 벡델데이만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낼 시그니처와 메인 컬러를 개발해 벡델데이2020의 정체성을 확립하였다.

시그니처 컬러

기존 색채 고정관념에 따르면 레드는 여성, 블루는 남성을 상징한다. 때문에 벡델데이의 시그니처 컬러는 그 중간 지점인 '퍼플'로 설정하였다. 여기에는 두 색의 틀을 깨고 화합하고자 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또한 '퍼플'(PANTONE 2592C)과 함께 즐거움을 상징하는 '옐로우'(PANTONE 116)를 사용함으로써 양성평등은 물론, 대중문화로서의 즐거움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PANTON 116C

PANTON 2592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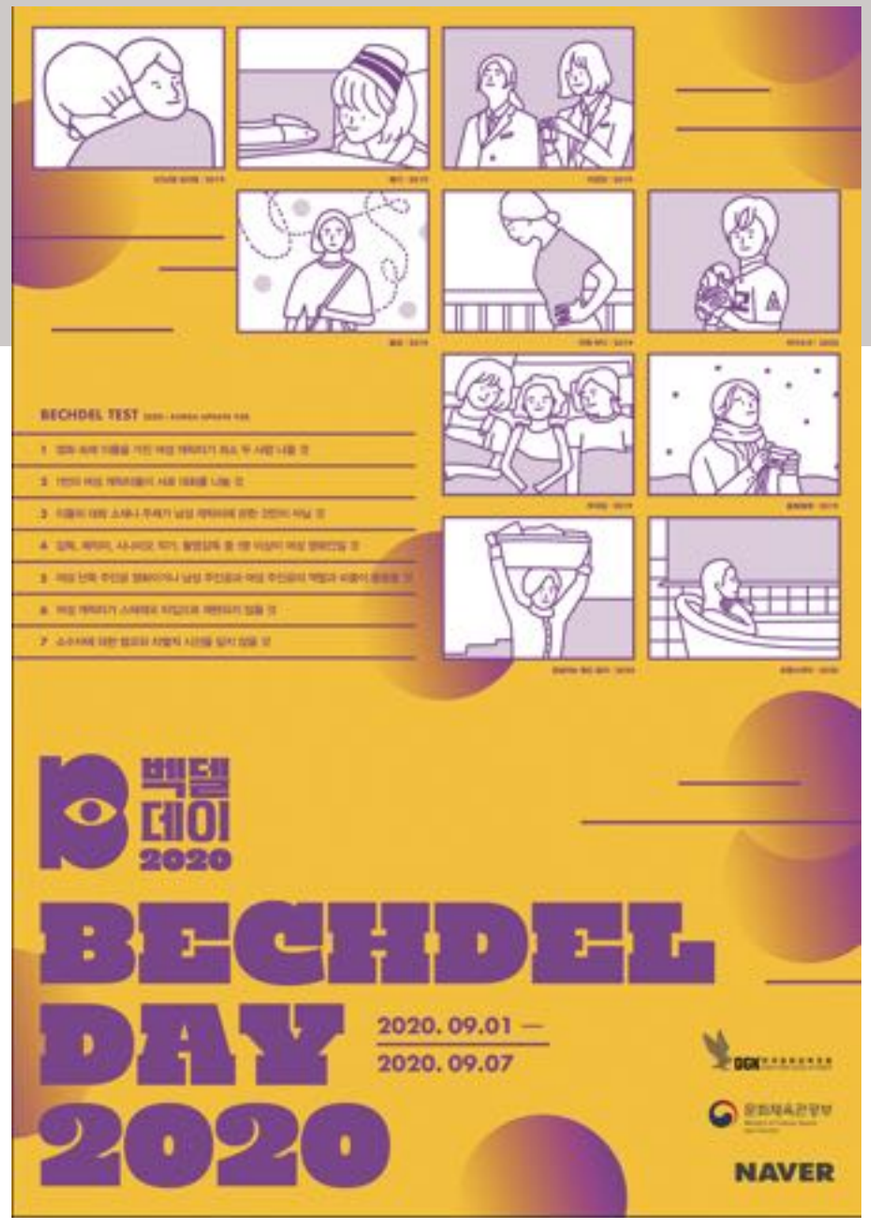
로고

벡델데이가 양성평등을 위한 '균형의 눈'으로 제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벡델'(Bechdel)의 알파벳 가운데 B를 '눈' 모양으로 활용. 벡델데이가 영화 내 양성평등을 주목한다는 것을 로고로 표현하였다.

벡델 데이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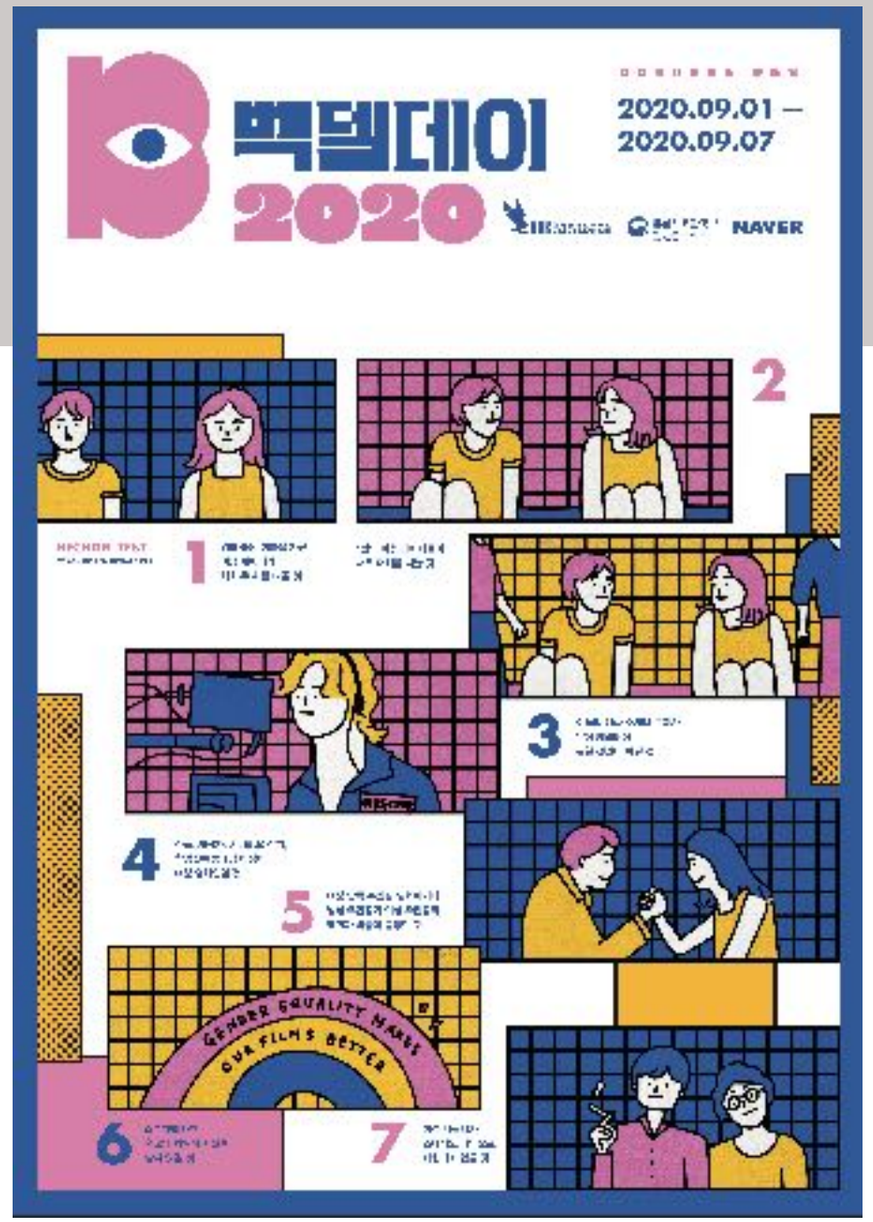
아이덴티티

③ 포스터



벡델데이 포스터 개발

벡델데이 론칭에 맞춰 벡델초이스10을 소개하는 버전과 벡델데이2020의 심사 기준을 알리는 버전의 두 가지 포스터를 개발해 소개함으로써 벡델데이2020의 정체성을 확립하였다.



| 벡델초이스10

벡델초이스 본심
벡델초이스 본심 심사 목록
벡델초이스10

| 벡델리안

02

벡델초이스 및 벡델리안 선정

벡델데이
2020

벡델초이스 및 벡델리안 선정

벡델초이스10

벡델초이스 본심

일　　시 2020년 7월 20일(월)
장　　소 서울시 역삼동 아그레라운지
심사위원 김보라 배우. 문시현 감독. 민규동 감독. 박현진 감독. 안상훈 감독. 이윤정 감독. 이화정 평론가. 임필성 감독. 진모영 감독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개봉한 한국영화 가운데
양성평등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유의미한 성과를 낸 영화 10편을 '벡델초이스10'이란 이름으로,
영화를 통해 양성평등에 기여한 영화인을 '벡델리안'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영화감독조합 소속 감독 7인을 포함해 배우와 평론가에 이르는
9명의 본심 심사위원이 예심에 오른 30편 전체를 관람하고
벡델데이2020만의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였다.



벡델초이스 본심 심사 목록

예심의 경우 이화정. 주성철 프로그래머가 진행. 벡델 테스트 외에 벡델데이2020만의 기준을 참고했으며. 이들 기준 외에도 9인의 심사위원이 작품의 기획 의도. 작품성. 해당 영화의 문화적·사회적 영향력 등. 다양한 관점을 놓고 토론을 거쳐 결정하였음

No.	영화명	감독	작가	주연	제작자	제작사	개봉일
1	칠곡 가시나들	김재환		박금분. 곽두조	김재환	주식회사 단유필름	2019-02-27
2	항거: 유관순 이야기	조민호	조민호	고아성. 김새벽	박현태	디씨지플러스	2019-02-27
3	생일	이종언	이종언	설경구. 전도연	이준동. 이동하. 이창동	나우필름. 영화사레드피터. 파인하우스필름	2019-04-03
4	미성년	김윤석	이보람. 김윤석	염정아. 김소진. 김혜준. 박세진. 김윤석	이동하	영화사레드피터. 화이브라더스코리아	2019-04-11
5	걸캅스	정다원	정다원 외	라미란. 이성경	변봉현	필름모멘텀	2019-05-09
6	보희와 녹양	안주영	안주영	안지호. 김주아	김용훈	한국영화아카데미	2019-05-29
7	기생충	봉준호	봉준호. 한진원	송강호. 이선균. 조여정	곽신애	바른손이앤에이	2019-05-30
8	엑시트	이상근	이상근	조정석. 윤아	강혜정. 류승완. 김정민	외유내강. 필름케이	2019-07-31
9	김복둥	송원근	김근라	한지민(내레이션)	김용진	한국탐사. 저널리즘센터	2019-08-08
10	밤의 문이 열린다	유은정	유은정	한해인. 전소니	이주환	영화사 리듬앤블루스	2019-08-15
11	우리집	윤가은	윤가은	김나연. 김시아. 주예림	김지혜	아토	2019-08-22
12	벌새	김보라	김보라	박지후. 김새벽	조수아. 김보라	에피파니	2019-08-29
13	메기	이옥섭	이옥섭. 구교환	이주영. 문소리. 구교환	구교환. 이옥섭.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2019-09-26
14	아워 바디	한가람	한가람	최희서. 안지혜. 김정영	오석근	한국영화아카데미	2019-09-26
15	가장 보통의 연애	김한결	김한경. 오효진	김래원. 공효진	이유진	영화사 집	2019-10-02
16	버티고	전계수	전계수	천우희. 유태오	장소정	영화사 도로시	2019-10-16
17	82년생 김지영	김도영	유영아	정유미. 공유	박지영. 곽희진	봄바람영화사	2019-10-23
18	영하의 바람	김유리	김유리	권한솔. 옥수분	심현우. 손승용	비밀의 화원. 브릿지 프로덕션	2019-11-14
19	윤희에게	임대형	임대형	김희애. 김소혜. 나카무라 유코. 성유빈. 키노 하나	박두희	영화사 달리기	2019-11-14
20	나를 찾아줘	김승우	김승우	이영애. 유재명	박세준	26컴퍼니	2019-11-27
21	감쪽 같은 그녀	허인무	허인무. 임희철	나문희. 김수안	손귀용	지오필름	2019-12-04
22	정직한 후보	장유정	김선. 허성혜	라미란. 김무열. 나문희	김홍백. 민진수	수필름. 홍필름	2020-02-12
23	기억의 전쟁	이길보라	이길보라	응우옌티 탄. 응우옌 럽	이길보라	영화사고래	2020-02-27
24	찬실이는 복도 많지	김초희	김초희	강말금	김성은. 서동현	지이프로덕션. 사이드미러	2020-03-05
25	이장	정승오	정승오	장리우. 곽민규. 공민정		인디스토리	2020-03-25
26	바람의 언덕	박석영	박석영	정은경. 장선		영화사 삼순	2020-04-23
27	초미의 관심사	남연우	강현주. 남연우	조민수. 김은영	이왕형	레진스튜디오	2020-05-27
28	프랑스여자	김희정	김희정	김호정. 김지영. 김영민. 류아벨	유병옥	인벤트스톤	2020-06-04
29	결백	박상현	박상현	신혜선. 배종옥	박준	이디오플랜	2020-06-10
30	야구소녀	최윤태	최윤태	이주영. 이준혁	오석근	한국영화아카데미	2020-06-18

벡델초이스10

#82년생김지영 #김도영감독 #김지영 #정유미 #벡델데이2020 #벡델초이스10

82년생 김지영

벡델 테스트의 중요한 기준처럼, 여성이 콘텐츠의 제목에서부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은 얼마나 감격인가. 지난 몇 년간 한국 사회의 양성평등 이슈에 있어 <82년생 김지영> 만큼 뜨거운 이름이 또 있었을까. 출간 2년 만에 누적 판매 부수 100만 부를 돌파하고 중국, 일본, 대만 서점가에서도 베스트셀러에 오른 『82년생 김지영』이 영화화된 것은 지금 우리 시대의 운명이었다. 봄바람영화사의 박지영, 곽희진 공동대표가 창립작으로 제작하고 유영아 작가가 각색에 참여한 뒤 단편 <자유연기>로 주목받은, 하지만 그보다 배우로 조금 더 알려졌던 신인 김도영 감독이 연출을 맡기까지의 과정도 한국영화계 여성 영화인들의 끈기와 자존심을 보여준 일이었다. 정유미 배우가 연기하는 김지영이 부엌에 우두커니 서서 일하다 느닷없이 빙의돼 "사부인"을 부를 때, 소설과 영화를 초월하는 소중한 공감과 위반. 더 나아가 한국영화의 새로운 자리가 만들어지는 순간이었다.

_ 주성철 벡델데이2020 프로그래머 추천의 글



1982년 봄에 태어나 누군가의 딸이자 아내, 동료이자 엄마로 2019년 오늘을 살아가는 '지영'(정유미). 때론 어딘가 갇힌 듯 답답하기도 하지만 남편 '대현'(공유)과 사랑스러운 딸, 그리고 자주 만나지 못해도 항상 든든한 가족들이 '지영'에겐 큰 힘이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말하는 '지영'. '대현'은 아내가 상처 입을까 두려워 그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고 '지영'은 이런 '대현'에게 언제나 "괜찮다"라며 웃어 보이기만 하는데…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몰랐던 당신과 나의 이야기.

- 감독: 김도영
- 작가: 유영아
- 주연: 정유미, 공유
- 제작: 박지영, 곽희진



#메기 #이옥섭감독 #여윤영 #이주영 #벡델데이2020 #벡델초이스10

메기

의심과 불신, 추측과 불안의 '구덩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회. 바로 어항 속 '메기'가 바라보는 왜곡된 세상이다. 메기는 이곳의 피해자인. 마리아 사랑병원 간호사 여윤영(이주영)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출처 불명의 'SEX-ray'로 발칵 뒤집힌 이곳에서 사람들의 호기심의 대상은 '찍힌' 여성 여윤영이다. 그 누구도 '찍은' 사람을 궁금해하지도 처벌하지도 않는 곳. 가십 위주, 여성 피해자가 양산되는 고질적인 사회에서 어항 속 메기처럼 여윤영은 숨을 쉬기가 힘들다. <메기>는 그저 고발에 그치지 않는다. 물의에 대한 책임을 묻는 병원 측의 퇴사 요구에 여윤영은 강력히 거부권을 행사한다. 당연하게 여겨졌던 세상의 관습에 맞서는 일격이다. 잘못한 남성에게는 구구절절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구덩이에 묻어 버리는 이 영화의 결말에 지지를! 이옥섭 감독이 이 사회를 향해 날리는 '찐블랙코미디'.

_ 이화정 벡델데이2020 프로그래머 추천의 글

"사람들은 왜 서로를 의심할까요?"

이 곳은 마리아 사랑병원. 오늘은 민망한 엑스레이 사진 한 장으로 병원이 발칵 뒤집혔어요! 세상에! 저를 가장 좋아하는 간호사 윤영 씨는 소문의 주인공이 자신과 남자친구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고 있어요. 과연 윤영 씨는 이 의심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아,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메기입니다.

- 감독: 이옥섭
- 작가: 이옥섭, 구교환
- 주연: 이주영, 문소리, 구교환
- 제작: 구교환, 이옥섭, 최영애





벡델초이스10

#미성년 #김윤석 감독 #영주 #염정아 #미희 #김소진 #주리 #김혜준 #윤아 #박세진 벡델데이2020 #벡델초이스10

미성년

언뜻 보기엔 미성년인 고등학생 두 명의 이야기다. 자세히 보면 나이만 주워 먹었지 여전히 미성년인 엄마 아빠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모순과 부조리의 가부장제 속에서 허우적대는 이들을 향한 냉소와 조롱과 연민과 공감과 연대와 화해가 층층이 쌓인 이야기다. 가장 큰 반전은 김윤석 배우의 연출 데뷔작이라는 사실이다. 거친 중년 남성 캐릭터의 필모 트랙을 외발로 질주하던 김윤석이 요상한 턴을 하며 기우뚱하는가 싶더니, 다른 발 하나를 우아하게 감아 착지하며 묘하게 균형 잡힌 피니시 동작을 선보였다. 생경하고 신선하다.

_ 민규동 감독 추천의 글



같은 학교 2학년 주리(김혜준)와 윤아(박세진)가 학교 옥상에서 만났다. 최근 주리의 아빠 대원(김윤석)과 윤아의 엄마 미희(김소진) 사이에 벌어진 일을 알게 된 두 사람. 이 상황이 커지는 것을 막고 싶은 주리는 어떻게든 엄마 영주(염정아) 몰래 수습해보려 하지만 윤아는 어른들 일에는 관심 없다며 엮이지 않으려 한다. 그 때, 떨어진 주리의 핸드폰을 뺏어든 윤아는 영주의 전화를 받아 그 동안 감춰왔던 엄청난 비밀을 폭로해 버리고, 이를 본 주리는 멘붕에 빠지게 되는데… 폭풍 같은 사건을 마주한 두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 감독: 김윤석
- 작가: 이보람, 김윤석
- 주연: 염정아, 김소진, 김혜준, 박세진, 김윤석
- 제작: 이동하



#벌새 #김보라감독 #은희 #박지후 #영지 #김새벽 #벡델데이2020 #벡델초이스10 #벌새단 #앨리슨벡델

벌새

영화 <벌새>는 은희(박지후)와 주변 인물의 갈등을 그린 작품으로 다양한 성격과 배경을 가진 이들이 등장한다. 그중 은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가족과 지숙. 영지 등인데 대부분이 여성임을 알 수 있다. 가부장적인 아빠와 함께 사는 엄마. 억압에서 벗어나려는 언니와 폭력적인 오빠. 그 속에서 은희는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러다 은희는 한문 선생님 '영지'를 만나게 된다. 그녀는 은희의 가정폭력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며 오빠에게 매 맞는 것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폭력적인지에 대해 알려주는 인물이다. 그런 영지와의 만남과 이별은 은희의 세계를 바꿔 놓는데, 은희가 영화 후반부 남자친구에게 "나 사실 너 좋아한 적 없어"라고 한 것이 그 증거이다. 영화가 진행될수록 은희는 남자친구와 불안한 관계에 놓이지만 영지와의 이별 이후 은희는 그 불안한 관계에서 벗어나 사뭇 달라진 모습을 선보인다. 관객으로서 이 장면이 은희의 성장을 드러낸다고 생각했다. 영화 <벌새>가 나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가능성'이었다. 여성으로 이루어진 극 속에서, 남녀의 사랑만이 아닌 다양한 사랑의 모습이 전혀 지루하지 않고 충분한 공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_ 김보라 배우 추천의 글

"나는 이 세계가 궁금했다."

1994년 그해, 14살 '은희'는 주변 관계로부터 사랑받기 위해 자신만의 세계와 관계를 구축해 나간다. 1초에 90번의 날개짓을 하는 '벌새'처럼 사랑받기 위해 서툴지만 부단한 노력을 하는 '은희'는 자신만의 세계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관계의 붕괴를 겪으며 1994년을, 그리고 삶을 살아낸다. 알 수 없는 거대한 세계와 마주한 14살 '은희'의 아주- 보편적이고 가장- 찬란한 기억의 이야기.

- 감독: 김보라
- 작가: 김보라
- 주연: 박지후, 김새벽
- 제작: 조수아, 김보라





#아워바디 #한가람 감독 #자영 #최희서 #벡델데이2020 #벡델초이스10

아워 바디

8년을 다람쥐처럼 달렸던 공시생 자영(최희서)이 갑자기 달리기에 빠지면서 만나는 사람들. 우리 시대 청년들의 이야기라고 단순하게 말하기엔 깊고, 난해하다. 달리기 고수 현주(안지혜)는 자영의 빛나는 롤모델이지만 그녀의 절망적 삶은 금방 드러난다. 새로운 일터에서 만난 비정규직 여성들의 삶 또한 전쟁터다. 여성 감독이 여성 주인공을 비롯 친구와 엄마, 동생, 직장 동료까지 모두를 여성으로 설정해 다양한 여성에 주목함으로써 이 이야기는 단순한 청년 이야기에서 묵직한 섹슈얼리티에 대한 논쟁을 가시처럼 송곳처럼 품고 있는 작품이 되었다. 스포츠 성장영화에서 깨어나 시대의 청년과 젠더에 대한 화두를 참구하라고 죽비를 내리친다.

_ 진모영 감독 추천의 글



8년 차 행정고시생 자영. 번번이 시험에 떨어지면서 공부와 삶에 모두 지쳐버린 그녀 앞에 달리는 여자 현주가 나타난다. 현주처럼 되고 싶다는 욕망으로 생애 처음 달리기를 시작한 자영은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며 조금씩 삶의 활기를 찾아가는데...

- 감독: 한가람
- 작가: 한가람
- 주연: 최희서, 안지혜, 김정영
- 제작: 오석근



#야구소녀 #최윤태 감독 #주수인 #이주영 #벡델데이2020 #벡델초이스10

야구소녀

"빨리 던지지 않아도 되는데..." <야구소녀> 주수인(이주영)의 말이다. 말의 요지는 빨리 던지는 것보다 '잘'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포수 미트에 빨리 들어가는 것보다 타자의 방망이에 부딪히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흔히 우리는 야구를 '인생'에 비유하며, 경기 속의 극적인 역전 상황을 우리네 '인생 역전'에 대입해 열광한다. 이런 인생의 축소판 속에서, 빠른 피칭으로 타자를 압도하는 강속구 투수를 우리는 마치 알렉산더, 나폴레옹 같은 패권 제왕처럼 여기며 동경한다. 그들의 어깨 근육과 힘줄에 가해지는 과부하와 부상보다, 그저 한순간의 강한 힘과 속도에만 열광한다. <야구소녀>는 이런 야구를 보는 시선, 아니, 우리 인생을 보는 이런 편협한 시선에 질문을 던진다. '소녀' 주수인이 던지는 공은 물리적 힘과 패권을 숭상하는 기존의 가치관에 파문을 일으킨다. 이 '소녀'를 처음에는 반대하지만 나중엔 그를 지지하는 '남성'과 끝까지 반대하지만 결국 그를 지지하는 '모성'의 구도는 꽤 흥미롭다. 영화 <야구소녀>는 인생이란 게임에서 기존의 남성 패권적 관념을 깨고 '잘' 던진 공을 누군가 쳐내더라도 주변에서 멋지게 잡아줄 수 있다는, 인생이란 게임을 운영하는 지혜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_ 안상훈 감독 추천의 글

고교 야구팀의 유일한 여자이자 최고구속 134km, 볼 회전력의 강점으로 '천재 야구소녀'라는 별명을 얻으며 주목받았던 야구선수 '주수인'(이주영). 고교 졸업 후 오로지 프로팀에 입단해 계속해서 야구를 하는 것이 꿈이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평가도 기회도 잡지 못한다. 엄마, 친구, 감독까지 모두가 꿈을 포기하라고 할 때, 야구부에 새로운 코치 '진태'(이준혁)가 부임하고 수인에게도 큰 변화가 찾아오는데… "전 해보지도 않고 포기 안 해요" 꿈을 향해 던지는 단 하나의 스트라이크 주수인 파이팅!

- 감독: 최윤태
- 작가: 최윤태
- 주연: 이주영, 이준혁
- 제작: 오석근





벡델초이스10

#윤가은감독 #하나 #김나연 #유미 #김시아 #미쓰백 #유진 #김예림 #벡델데이2020 #벡델초이스10 #우리들

우리집

<우리집>은 어른 대신 집을 지키는 아이들의 분투기다. 아이가 아이였을 때. 아이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어른의 감각으로는 감히 기억한다고 말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감정들을 생생히 되살려낸다. 노을에 가까운 생기로 가득 찬 분홍빛 살갗 아래 살얼음판을 걷듯 무력했던 모든 두려움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쁜 것, 즐거운 것에서 눈을 뗄 수 없었던 주책없는 호기심들을. 슬픔을 비집고 물색없이 터져 나오는 웃음들에 뒤따랐던 알 수 없는 죄책감들을. 아이가 아이였을 때. 소녀들은 아이들의 대표가 될 수 없었다. 어른의 반대말은 아이였지만 아이라는 낱말의 얼굴은 소년의 것이었다. 이야기가 소녀의 몫이 되려면 '왜 소년이 아닌 소녀여야 하는지' 이유가 필요했던 시절. <우리집>의 소녀들은 소년의 대립항으로서 자신을 증명하지 않고도 충분히 아이가 된다. 그것만으로 나는 감개무량하였다. 이 오래된 결핍의 빈자리에 이 영화를 놓는 것이 미안하다. 이 영화와 함께 자라난 아이들은 무엇이 문제였는지조차 모를 것이다. 젠더 감수성의 프리즘을 통과하지 않아도, 이 영화는 이미 무지갯빛이다.

_ 이윤정 감독 추천의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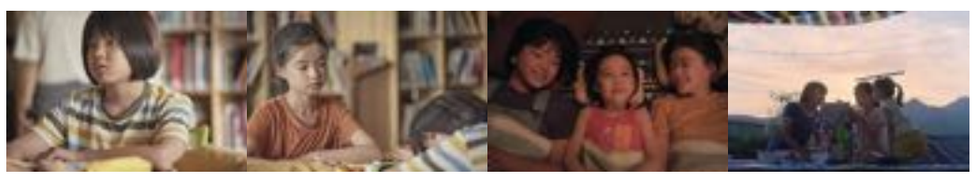


"우리집은 진짜 왜 이럴까?"

매일 다투는 부모님이 고민인 12살 하나와 자주 이사를 다니는 게 싫기만 한 유미, 유진 자매는 여름방학, 동네에서 우연히 만나 마음을 나누며 가까워진다. 풀리지 않는 '가족'에 대한 고민을 터놓으며 단짝이 된 세 사람은 무엇보다 소중한 각자의 '우리집'을 지키기 위해 모험을 감행한다.

"우리집은 내가 지킬 거야. 물론 너희 집도!"

- 감독: 윤가은
- 작가: 윤가은
- 주연: 김나연, 김시아, 주예림
- 제작: 김지혜



#윤희에게 #임대형감독 #윤희 #벡델리안 #김희애 #쥰 #나카무라유코 #벡델데이2020 #벡델초이스10

윤희에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에 성적 정체성, 국적, 인종의 경계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시대에, 과거의 사회적 편견과 잣대에 의해 이뤄질 수 없었던 인연의 끈이 다시 연결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영화. <윤희에게>. 이 영화는 이웃나라에 사는 첫사랑과 수십 년 만에 재회하는 과정을, 그 당사자와 그녀의 성숙하고 귀여운 십대 딸의 관계 속에서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다. 모든 배우들의 연기는 담담하지만 힘이 있으며 감독은 영화에 등장하는 어떤 캐릭터도 함부로 판단하거나 단죄하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끝내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보편적인 감정이 누군가에겐 매우 힘들고 어려운 결단의 과정이 뒤따라야 하는 것임을 유연하고 감동적으로 설득해낸다. 벡델 테스트의 창안자이자 뛰어난 퀴어 아티스트인 앨리슨 벡델에게도 이 아름다운 작품을 추천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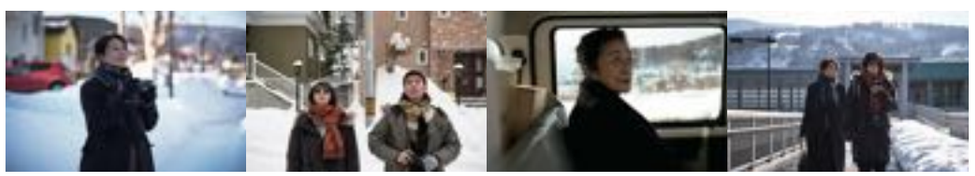
_ 임필성 감독 추천의 글

다시 날 가슴 뛰게 만든 그 말,
"윤희에게, 잘 지내니?"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윤희' 앞으로 도착한 한 통의 편지. 편지를 몰래 읽어본 딸 '새봄'은 편지의 내용을 숨긴 채 발신인이 살고 있는 곳으로 여행을 제안하고, '윤희'는 비밀스러웠던 첫사랑의 기억으로 가슴이 뛴다. '새봄'과 함께 여행을 떠난 '윤희'는 끝없이 눈이 내리는 그곳에서 첫사랑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품는데…

- 감독: 임대형
- 작가: 임대형
- 주연: 김희애, 김소혜, 나카무라 유코, 성유빈, 키노 하나
- 제작: 박두희





#찬실이는복도많지 #김초희감독 #찬실 #강말금 #벡델데이2020 #벡델초이스10

찬실이는 복도 많지

<찬실이는 복도 많지>는 하루아침에 백수가 된 40대 여성의 생존을 위한 고군분투기이자,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중년 여성의 성장담이고, 한편으론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여성들의 연대기이기도 하다. 영화 속 세 여성. 찬실과 배우 소피 그리고 집주인 할머니는 각자에게 주어진 조건 속에서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낸다. 이들은 각기 다르지만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서로에게 진실한 친구이자 조언자가 되어준다. 삶의 위기를 헤쳐 가는 과정에서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네는 동료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 일인가. 영화의 결말에서 어두운 언덕길을 내려가는 동료들을 위해 찬실이 비춰주는 작은 플래시 불빛은, 꿈과 희망을 찾아 헤매는 세상의 모든 이에게 영화가 보내는 공감의 신호이자 연대의 메세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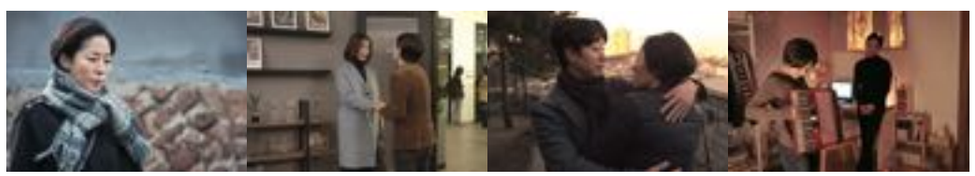
_ 문시현 감독 추천의 글



"아 망했다. 왜 그리 일만 하고 살았을꼬?"

집도 없고, 남자도 없고, 갑자기 일마저 똑 끊겨버린 영화 프로듀서 '찬실'. 현생은 망했다 싶지만, 친한 배우 '소피'네 가사도우미로 취직해 살길을 도모한다. 그런데 '소피'의 불어 선생님 '영'이 누나 마음을 설레게 하더니 장국영이라 우기는 비밀스런 남자까지 등장! 새로 이사간 집 주인 할머니도 정이 넘쳐 흐른다. 평생 일복만 터져왔는데, 영화를 그만두니 전에 없던 '복'도 들어오는 걸까?

- 감독: 김초희
- 작가: 김초희
- 주연: 강말금
- 제작: 김성은, 서동현



#프랑스여자 #김희정감독 #미라 #김호정 #벡델데이2020 #벡델초이스10

프랑스 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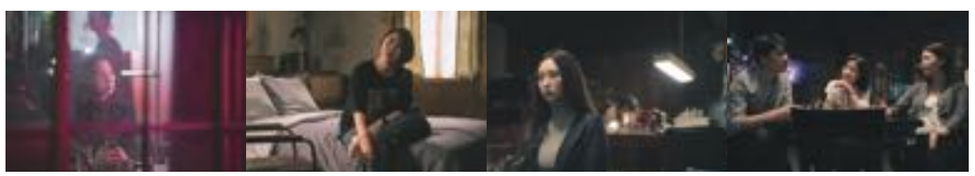
<프랑스여자>는 이별과 상실의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프랑스에서 서울로 돌아온 미라가 현재와 과거, 현실과 환상을 넘나드는 여정을 그린 영화다. 이 여정 속에서 그녀는 왜곡되거나 지워진 기억 아래 감춰진 것들을 목도하고, 유독 또렷하게 남아 있는 순간들의 의미를 곰곰이 되새긴다. 미라를 따라 여러 경계를 넘나들다 보면 현재를 살면서 순간순간 나를 끌어당기는 과거와 환상 속에 머물던 감각들이 되살아난다. 미라는 20년 동안 프랑스에 살았지만 여전히 이방인 같다고 느끼는, 경계에 서 있는 인물이다. 미라 같은 중년 여성을 주인공의 자리로 데려와 개성과 흠결, 내면의 복잡함을 가진 생생한 존재로 깊이 있게 그려낸 한국영화를 만날 수 있어 기뻤다. 미라의 후배이자 영화감독으로 등장하는 영은도 그간 자주 보지 못한 낙천적인 여성 예술가 캐릭터로서 존재감을 드러낸다. 감독의 페르소나 같은 영은이 미라 곁에 있어서 이 영화가 가능했으리라.

_ 박현진 감독 추천의 글

배우를 꿈꾸며 파리 유학을 떠났지만, 프랑스인 남편을 만나 정착한 '미라'. 이혼 후 프랑스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20년 만에 한국에 돌아온 그녀는 오랜만에 찾은 단골 술집에서 옛 친구들과 재회한다. 2년 전 세상을 떠난 후배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려 애쓰지만 선명하지 않은 기억 속에서 혼란스럽던 그때, 갑자기 그 시절로 돌아가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꿈과 현실이 교차하는 특별한 여행을 하게 되는데… 프랑스에도 한국에도, 과거에도 현재에도 정박하지 못하는 방외자의 자리에 여자가 놓여있다.

- 감독: 김희정
- 작가: 김희정
- 주연: 김호정, 김지영, 김영민, 류아벨
- 제작: 유병욱





벡델리안

벡델리안 감독상
<벌새> 김보라

<벌새>의 날갯짓은 바쁘고 집요하다. 해외 수상을 시작으로 국내 관객 14만 7140명이라는 독립영화로는 기록적인 흥행을 한 후, 이제는 미국과 일본 등에서 개봉해 호평을 얻고 있다. 김보라 감독이 열어 준 '다른 눈'의 영향이다. 세월호를 겪은 우리에게 김보라 감독은 1994년 성수대교의 비극이 끝나지 않았음을, 이 비극의 동시성에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의 속성이,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한 여린 '인간'이 있었음을 에둘러 말해준다. 가장 사적인 기억을 끄집어내는 이 과정에서 병든 이 사회의 징후를 느끼고, 아파하고, 받아들이는 존재는 다름 아닌 십대 소녀 은희(박지후)다. 개발과 폭력의 시대, 가부장제 사회의 영향이 만들어낸 거친 남성의 시대에 신음하던 아이는, 한문 선생인 '여성' 영지(김새벽)와의 만남을 통해 모순된 사회의 벽을 체감하고 앞으로 전진할 힘을 얻는다. 90년대를 그린 많은 작품들 속 스크린이 주목하지 않거나 간과했던 또 하나의 성. 무시되거나 지워졌던 여성 캐릭터들은 <벌새>의 은희와 영지 선생님의 교감을 통해 다시금 생명력을 얻고 2019년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 관객들에게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김보라 감독이 만들어낸 날갯짓은 이만큼 강력하고 지속적이며, 그래서 더할 나위 없이 반갑다.

_ 이화정 프로그래머

벡델리안 작가상
<미성년> 이보람, 김윤석

아빠가 바람났다! 이 영화의 '사건'은 익히 보아 온 막장 통속극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미성년>은 이 익숙함을 모두 허물고 기초부터 새롭게 다져 아주 다르게 쌓아 올린 이 시대의 새로운 영화다. 난장이 된 가족사를 주관하는 이는 사건을 저지른 당사자인 대원(김윤석)이 아닌, 두 집의 딸 주리(김혜준)와 윤아(박세진)다. 십대 소녀들의 시각에서 각각의 엄마 영주(염정아)와 미희(김소진)는 엄마 이전에 '성인' '여성'으로서 작용한다. 4명의 여성이 만들어내는 이 영화의 겹겹의 층위는 시나리오 집필을 비롯해 연출, 출연까지 한 김윤석과 원작이 된 연극을 쓰고, 영화 버전까지 쓴 이보람 작가에 의해 디테일하고 정교하게 완성되었다. 빠른 속도감, 압도적인 대사량을 녹여낸 <미성년>의 극본은 서른 번이 넘는 수정고를 거쳐 탄생했다. 이보람, 김윤석 작가 공동의 눈으로 본 여성들은 무턱대고 적대하거나, 반목하거나,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하지 않아 반갑다. 이들은 사건에 당당히 맞서고, 이해하려 노력하며, 연대하고 개선하고자 애쓰는 인간이자, 그래서 기존의 여성 캐릭터들에게 손쉽게 주어지지 않았던 많은 지점을 수행해내는 주체적 여성 캐릭터다. 이보람, 김윤석 작가는 스크린이 주목하지 않아 그동안 비켜나 있던 십대와 중년 여성에게 사건의 열쇠를 쥐게 해준, 2019년의 가장 용감하고 도전적인 작가다.

_ 이화정 프로그래머

벡델리안 배우상
<윤희에게> 김희애

"너를 만나고서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어." <윤희에게>의 윤희(김희애)는 누군가에게 사랑이 죄가 되었던 시절을 관통하고 살아내면서 스스로 부끄러워하며, 그리고 어쩌면 그런 자신을 이번 생의 실패자라 여기며 살아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힘겹게 닿게 된 편지에서 쥰(나카무라 유코)은 윤희를 통해 자기 자신을 잘 알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김희애 배우 또한 TV 드라마 <여심>으로부터 영화 <윤희에게>에 이르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번 그리 특별할 것 없는 선택을 하며 살아왔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 쥰에게 윤희가 그러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깊고도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은 아닐까. 이번 벡델초이스10 선정 대상작은 아니었지만, 김희애 배우의 20년 만의 영화 복귀작이었던 <우아한 거짓말>(2014)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며 김희애 배우의 위풍당당한 변신이 돋보였던 <허스토리>(2018) 모두 벡델테스트의 기준을 훌쩍 넘어선 영화들이었다. 자신의 지난 삶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고, 딸이 다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며 환한 얼굴로 이력서를 써내려 가는 <윤희에게>의 윤희를 보면서 한국영화계도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되었다.

_ 주성철 프로그래머

벡델리안 제작자상
<우리집> 김지혜

창립작으로 윤가은 감독의 <우리들>(2016)을 선보이며 등장한 영화사 아토ATO(이하 아토)는 이후 <용순> <홈> <살아남은 아이>를 거쳐, 윤가은 감독의 두 번째 장편이자 아토의 다섯 번째 작품인 <우리집>을 내놓았다. 영화 수입·배급사를 시작으로 영화제를 거쳐 영화제작사의 제작부, 제작실장, 프로듀서를 차례대로 거치며 뚝심 있게 달려온 아토 김지혜 공동대표의 다양한 경험과 행보, 그 믿음직한 추진력은 지난 몇 년간 충무로 영화인들에게 신선한 자극이 됐다. 아토의 선명한 필모그래피 속에서 여성 감독과 여성 주인공 들이 보여준 비전 또한 벡델이 제안한 바를 충족시키며, 그것은 새로운 영화를 꿈꾸는 동시대 영화인 모두에게 중요한 방향성을 마련해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토의 순우리말이 그러하듯이, 아토는 어느 날 한국영화계로 찾아온 소중한 '선물'이 되었다.

_ 주성철 프로그래머



| 홍보·마케팅

보도자료 배포
소셜미디어 계정 운영
온라인 아카이브 활용
공식 굿즈 이벤트

| 홍보·마케팅 결과

언론 보도
방송
소셜미디어

벡델데이
2020

03

벡델데이2020
홍보·마케팅

홍보·마케팅

홍보기간 **2020년 8월 12일 ~ 9월 9일**
행사방법 **언론사 대상 보도자료 배포 및 대중 대상 온라인 홍보**

홍보·마케팅 방법① 보도자료 배포

언론 매체를 대상으로 양성평등주간과 첫 해를 맞은 벡델데이2020을 알리고 벡델초이스10와 벡델리안은 물론, <방구석1열>의 벡델데이2020 특집과 벡델데이2020 행사를 안내하기 위해 총 7회에 걸쳐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였다.

순서	제목	배포시기
1차	**한국영화감독조합 주관 '벡델데이2020' 안내! 벡델초이스10&벡델리안 선정 발표!**	8월 12일 (수) 08:00
2차	**"앨리슨 벡델에게 추천한다!" '벡델데이2020' 선정 벡델초이스10&벡델리안 추천사 공개!**	8월 18일 (화) 08:00
3차	**'벡델데이2020' 선정 벡델리안 배우 김희애, 8/30(일) 오전 10시 30분 JTBC <방구석1열> 전격 출연!**	8월 26일 (수) 08:00
4차	**'벡델데이2020' 9/4(금) 오후 7시 네이버 통해 공식 행사 개최! 김보라 배우, <벌새> 김보라 감독, <우리집> 윤가은 감독 참여!**	9월 1일 (화) 08:00
5차	**'벡델데이2020'만의 특별 게스트 AI, 9/4(금) 오후 7시 심포지엄 패널로 참석! 인공지능 분석 결과 전문 선공개!**	9월 2일 (수) 08:00
6차	**[V LIVE 링크 추가] '벡델데이2020' 바로 오늘 9/4(금) 오후 7시 공식 행사 개최! 김보라 배우부터 <벌새> 김보라 감독까지!**	9월 4일 (금) 08:00
7차	**'벡델데이2020' 영화계 성평등을 위한 건강한 담론의 장 만들면 성료!**	9월 9일 (수) 0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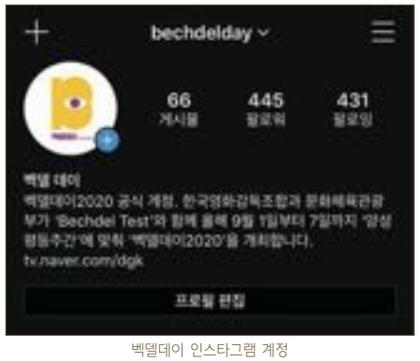
*협력 업체: 플래닛, 절찬상영중

홍보·마케팅 방법② 소셜미디어 계정 운영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벡델데이2020을 보다 친근하게 소개하기 위해 인스타그램(계정: @bechdelday)과 트위터(계정: @bechdelday)를 주요 소통 공간으로 선택. 약 한 달간 계정을 운영함으로써 양성평등주간의 의미와 벡델데이2020의 취지, 구체적인 행사 안내, 벡델초이스10과 벡델리안 선정 소개, 벡델초이스10 명대사 열전, '영화와 성평등'과 관련한 최근 뉴스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영화를 통한 양성평등 구현'이라는 벡델데이2020의 취지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한 달 동안 인스타그램과 트위터 각각 팔로워 수 400명을 넘겼으며, 벡델데이 계정을 통한 뉴스를 다수의 유저가 리그램 혹은 리트윗하는 등 소셜 네트워크 소통을 활발히 진행하였다.



벡델데이 트위터 계정



벡델데이 인스타그램 계정

홍보·마케팅 방법③ 온라인 아카이브 활용

벡델데이2020 행사가 네이버 V LIVE를 통해 소개된다는 점에서 착안. 방송 전날인 9월 3일 네이버TV에 '한국영화감독조합' 공식 계정을 개설(링크: tv.naver.com/dgk)하였다. 계정 개설 후에는 벡델초이스10 소개 영상과 벡델리안 시상식, 벡델데이2020 행사 예고편은 물론 벡델데이2020 심포지엄과 라운드테이블을 포함한 2시간 20분짜리 '풀 버전'을 공유하였는데, 이는 스트리밍 콘텐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실제 네이버TV를 통한 영상 재생 수는 9천 건에 가까우며, 2시간이 넘는 풀 버전 또한 조회 수가 600건이 넘는 등 '아카이빙'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행사 이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관련 자료에 대한 문의가 많았고, 이때 네이버TV를 활용하도록 안내함으로써 향후 벡델데이가 지속되는 데 바탕이 되는 자료를 공유 중이다.



네이버TV 한국영화감독조합 채널

홍보·마케팅 방법④ 공식 굿즈 이벤트

벡델데이2020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관객과 만나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고자 벡델데이2020 공식 굿즈를 제작해 관객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벡델데이2020 굿즈 박스는 앨리슨 벡델의 벡델 테스트를 문구로 한 에코백과 벡델 테스트 지수를 체크할 수 있는 포스트잇 2종 세트, 벡델데이2020 기념 볼펜, 벡델데이 로고 스티커까지 총 4종의 기념 굿즈로 구성되었으며 여기에 DGK 그립톡을 추가했다. 벡델데이2020의 네이버 V LIVE 소식을 알리기 위해 인스타그램과 트위터를 통해 해당 내용에 대한 리그램, 리트윗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이들 중 일부를 추첨해 기념 굿즈를 전달해 '관객 서비스'를 충실히 함으로써 향후 이어질 벡델데이에도 꾸준히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였다. 또한 벡델리안들의 사인이 담긴 사인 포스터 또한 관객 이벤트로 활용했다. 굿즈 이벤트에 대한 관객 반응도 뜨거워 "벡델데이2020 V LIVE 리트윗 이벤트로 받은 벡델데이 공식 굿즈가 도착했어요! 에코백 안주머니의 벡델데이2020 로고까지 넘나 완벽. 내년에도 올해만큼 좋은 이야기 많이 들려주세요."(트위터_@song****). "벡델데이2020 받고 싶던 에코백 세트가 왔다. 벡델데이2020을 시작으로 앞으로 쭉… 그리고 언젠가는 모든 날이 벡델데이가 되기를 바라면서."(트위터_@Americano*****) 등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벡델데이2020 공식 굿즈 세트



벡델데이2020 사인 포스터

홍보·마케팅 결과

① 언론 보도

중앙일보, 연합뉴스, 시사위크 등 복수의 언론 매체를 통해 벡델데이2020 관련 보도가 160여 회 보도되었다. 벡델데이2020 특집으로 꾸며진 <방구석1열>에 김희애 배우가 출연한 것이 화제가 돼 다수의 연예 매체에 관련 뉴스가 소개되는 기회가 됐다. 특히 <중앙일보>의 경우, 양성평등주간 마지막 날인 9월 7일자 기사에서 "이름·대화 없는 여성 캐릭터 그만… 비주류 넘어 흥행 코드 된 '여성'"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발행해 벡델데이의 취지와 심포지엄 및 라운드테이블 내용을 상세히 소개했으며, 벡델데이2020 풀 버전 영상 링크를 공유하는 등 벡델데이2020을 집중해 소개하였다. 벡델데이2020을 다룬 유수 언론들은 벡델데이 행사가 향후 정기적으로 이어져야 이 취지를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 강조하였다.



벡델데이020 관련 언론 보도기사

② 방송

JTBC 방송 프로그램 <방구석1열>에 8월 30일과 9월 6일, 2주에 걸쳐 벡델데이2020 특집 방송이 편성된 데 더해 뉴스 코너 <아침& 라이프>에서는 벡델데이2020 행사 당일인 9월 4일, 행사 안내를 집중해 전하는 등 문화·예술 면을 통해 벡델데이2020을 조명하는 기회를 가졌다.



<방구석1열> 121회



JTBC 뉴스 <아침& 라이프>

③ 소셜미디어

벡델데이2020 인스타그램과 트위터 공식 계정을 통해 대중과 직접 소통한 것은 물론, 인기 인스타그램 계정인 '넷플릭스코리아'와 '엘르코리아', '씨네21' 등에서 양성평등주간과 벡델데이2020을 기념해 특별 피드를 편성·공유함으로써 대중에 보다 큰 관심을 얻었다. 또한 전통 언론 매체 이외에도 웹을 중심으로 하는 테일러컨텐츠와 더 스크린 등에서 벡델초이스10과 벡델리안 선정 소식과 벡델데이2020 개최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면서 영화 주요 관객층이자 벡델데이2020의 주요 타깃층이라 할 수 있는 20·30대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다.



넷플릭스코리아 인스타그램 중 벡델데이 관련 피드 컷

| 벡델데이2020 행사

개요
사전준비
심포지엄 “한국영화, 벡델 테스트와 만나다”
라운드테이블 “벡델리안과 차별 없는 영화를 말하다”
벡델데이2020 관객 반응

| <방구석1열> 벡델데이2020 특집

벡델데이
2020

04
벡델데이2020
행사

벡델데이2020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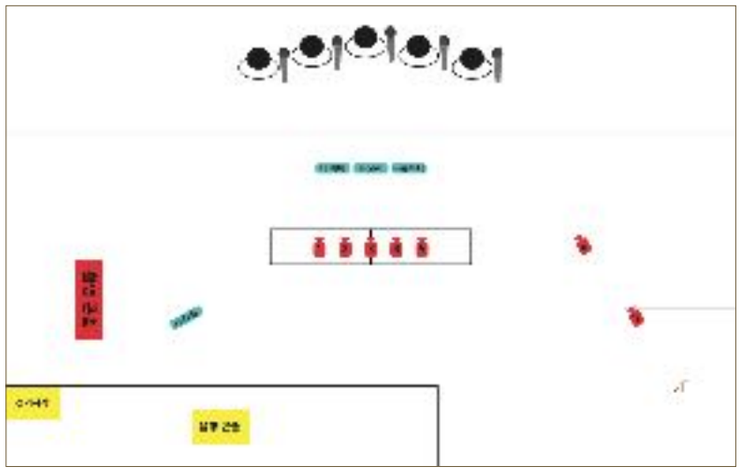
개요

행사 내용 1부 심포지엄, 2부 라운드테이블
녹화 일시 2020년 8월 28일(금)
녹화 장소 CJ아지트 광흥창
방송 일시 2020년 9월 4일(금) 오후 7시, 1시간 40분 진행
방송플랫폼 네이버 V LIVE

심포지엄과 라운드테이블로 구성된 벡델데이2020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지키며 보다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격상 전인 8월 28일 녹화하였으며, 양성평등주간 중 대중적 참여가 가장 높은 금요일 퇴근 시간 이후인 9월 4일 오후 7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개하였다. 벡델데이2020은 방역 수칙을 따르기 위해 참여자 전원 체온 체크를 진행했으며, 대면 시 마스크 착용, 토론 시 옆 좌석 사이에 아크릴 판을 설치해 비말 전염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1부 심포지엄과 2부 라운드테이블 출연자의 동선을 분리해 관계자 간에 접촉을 최소화한 상태로 촬영하였다.

사전준비

벡델데이2020 촬영을 맡은 세븐시스템과 촬영 장소를 후원한 것은 물론 음향과 조명을 담당한 CJ아지트 광흥창 측과 사전 미팅을 통해 카메라 세팅과 조명, 음향 설비를 확인한 것은 물론 출연자 대기실, 휴게 장소 등을 점검하였다. 촬영에는 총 7대의 카메라가 사용되었다.



벡델데이2020 카메라 배치도

심포지엄 “한국영화, 벡델 테스트와 만나다”

1. 스크린 안과 밖, 모두의 성평등을 위하여 | 조혜영 영화예술학 박사
2. AI가 바라본 벡델초이스10 | KAIST 인터랙티브 미디어랩
3. AI와 인간이 함께 양성평등을 논하다 | 조혜영 박사, 윤가은 감독, 이동하 대표



*진행: 이화정 프로그래머

벡델데이2020 1부 심포지엄은 “한국영화, 벡델 테스트와 만나다”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벡델 테스트를 통해 지난 10년간의 한국영화를 돌아보고, 양성평등을 지향하기 위해 한국영화계가 풀어야 할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로, 조혜영 영상예술학 박사가 ‘스크린 안과 밖, 모두의 성평등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한국영화 역사 속 양성평등 경향 분석 및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우선 발제하였다. 또한 KAIST 인터랙티브 미디어랩이 벡델초이스10을 대상으로 AI가 진행한 벡델 지수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영화를 직접 기획하고 만드는 감독과 제작자가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라운드테이블 “벡델리안과 차별 없는 영화를 말하다”

1. 벡델리안 시상식 | 변영주 감독, 김보라 배우(발표), 민규동 조직위원장(시상)
2. 벡델리안과의 대화 | 김보라 감독, 이보람 작가, 김지혜 대표











벡델리안 작가상

“쓰고 싶은 대로 재밌게 썼는데 이런 상까지 받게 되다니 너무 기분이 좋다. 앞으로 더 책임감을 갖고 좋은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_<미성년> 이보람 수상 소감

“이보람 작가와의 멋진 협업으로 완성된 작품으로 상을 받게 돼 정말 기쁘다.”
_ <미성년> 김윤석 수상 소감

벡델리안 제작자상

“아토ATO와 <우리집>을 함께한 스태프와 배우들.
이 영화에 투자한 롯데 아르떼와 마케팅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주는
‘응원의 상’으로 생각하겠다.
앞으로도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감사드린다.”
_<우리집> 김지혜 아토 공동대표 수상 소감

벡델리안 배우상

“의미 있는 영화계 행사에 불러주고, 또 벡델리안으로 선정해 주어 감사하다.
개인적으로 너무나 아끼는 영화 <윤희에게>도
다시 한번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쁘다.”
_ <윤희에게> 김희애 수상 소감







*진행: 변영주 감독, 김보라 배우

벡델데이2020 2부 라운드테이블은 벡델리안과 함께 ‘영화와 양성평등’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으로 벡델리안 감독상의 김보라 감독(<벌새>), 작가상의 이보람 작가(<미성년> 김윤석 작가와 공동 수상), 제작자상의 아토ATO 김지혜 대표(<우리집>)가 참석하였다. 이들은 영화를 기획, 집필, 감독, 연기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을 구현하는 것이 어떤 과정인지 현장의 경험담을 나눠 주었으며, 모두 한입을 모아 한국영화의 미래가 보다 성평등한 방향으로 향하기를 기원하였다.

벡델데이2020 관객 반응



네이버 V 라이브로 공개된 벡델데이2020은 **3천 건 이상의 조회 수와 7만 7천 건이 넘는 '좋아요'**를 받는 등 뜨거운 관객 반응을 이끌어냈다. 실시간 댓글 호응도 높아 중계 중간중간 "이런 콘텐츠 기획해주셔서 감사해요"(네이버_이***), "꼭 다시보기 부탁드려요!"(네이버_*) 등의 의견이 달렸으며, 트위터 등을 통해서는 "벡델데이 브이 라이브한다. 나 왜 벅차오름"(트위터_@zzin***), "조혜영 평론가 발표 중 제시한 데이터들이 정말 흥미롭다!"(트위터_@ljyg***), "내년 벡델데이 행사는 오프라인에서 열 수 있게 되길 그리고 힘든 시기에 여성 창작자와 관객 모두 무너지지 않기를"(트위터_@the3rd_r***) 등의 의견이 개진되는 등, '벡델데이2020' V LIVE에 대한 소감과 통계 자료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크게 회자되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듯 **벡델데이2020은 영화계 내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건강한 '담론 형성'에 적극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방구석1열> 벡델데이2020 특집

JTBC <방구석1열> 121회·122회 연속 편성 역대 최고 시청률 달성

벡델데이2020 기간인 양성평등주간(9월 1일~7일) 직전인 2020년 8월 30일과 양성평등주간 중인 9월 6일 JTBC 영화 프로그램 <방구석1열>(121회·122회)에 '벡델데이2020 특집'이 편성·방송되었다. 벡델데이2020 특집 방송에는 벡델초이스10 중 한 작품인 <윤희에게>의 주연 배우 김희애가 출연, 벡델데이2020을 적극 홍보하였다. '벡델리안'이기도 한 배우 김희애를 통해 벡델데이2020의 첫 행보가 보다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벡델데이2020의 조직위원장인 민규동 감독, 집행위원장인 변영주 감독, 프로그래머인 주성철 기자가 함께 출연해 벡델 테스트와 벡델데이2020이 추가로 신설한 기준 등에 대해 상세 소개하였다.

벡델데이2020 특집은 2회 연속 편성되었는데 이는 2019년 11월 방송된 81회와 82회의 '독립영화 특집' 이후 40회 만에 이뤄진 것으로, 벡델데이2020과 김희애 배우를 향한 관심과 주목도를 새삼 실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제공: 닐슨코리아

벡델데이2020 특집 중 **첫 방송인 121회(8월 30일 방송)의 경우, 2.071%의 시청률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역대 <방구석1열> 시청률 중 가장 높은 것**이었다. 김희애 배우의 영향력을 체감할 수 있었던 순간으로 벡델데이2020을 대중에게 각인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Appendix

01

심포지엄
발제 자료 Ⅰ

한국영화,
누가 만들고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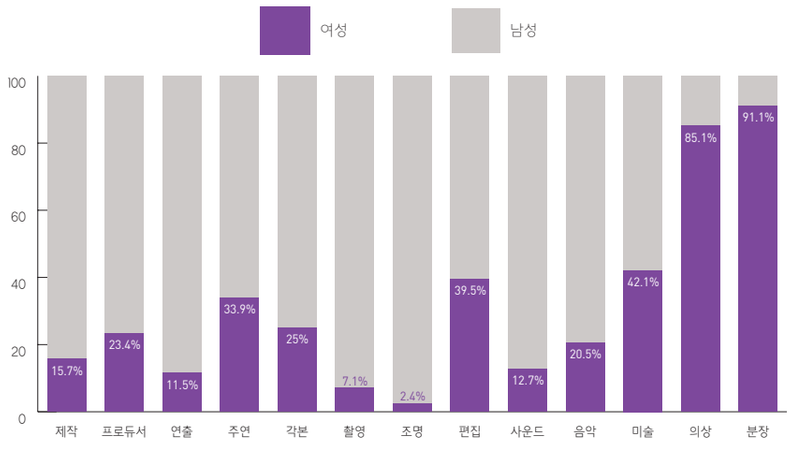
한국영화는 왜 성평등이 필요한가?

성별 불균형 해소
성폭력/위계폭력의 구조적 원인 해결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창의성을 발휘할 동등한 기회제공
다양성의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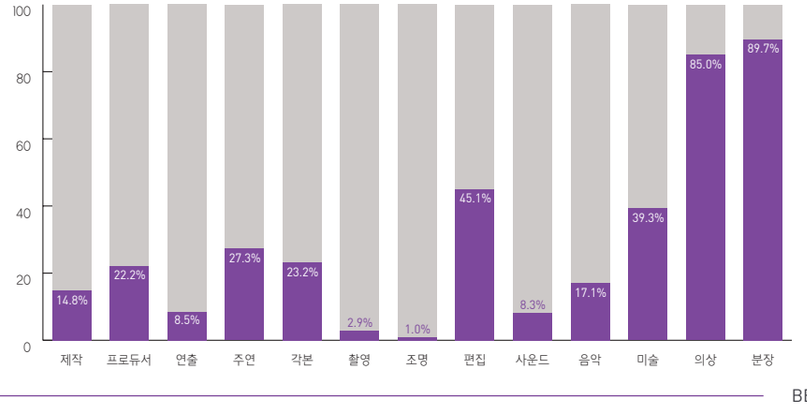
*본 발표의 모든 데이터는 <한국영화 성평등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혜영, 김선아, 주유신 외, KOFIC, 2020)에서 발췌

데이터로 본 한국영화 10년 (2009-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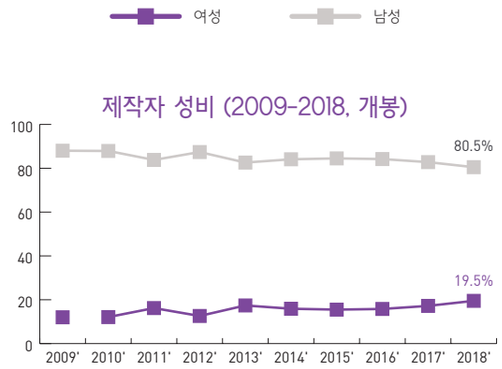
개봉영화 헤드 스태프 성비 (2009-2018, 1,433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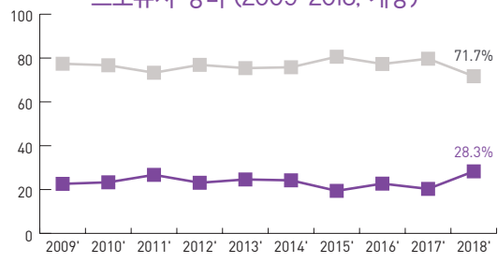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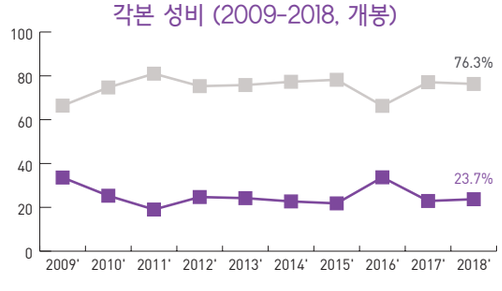
상업영화 헤드 스태프 성비(2009-2018, 468편)



핵심 창작자 헤드 스태프 양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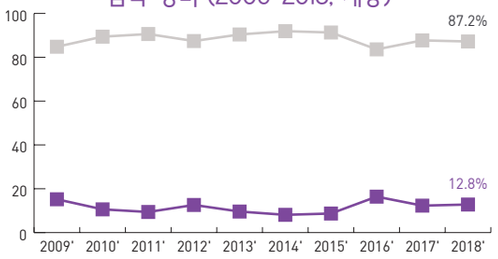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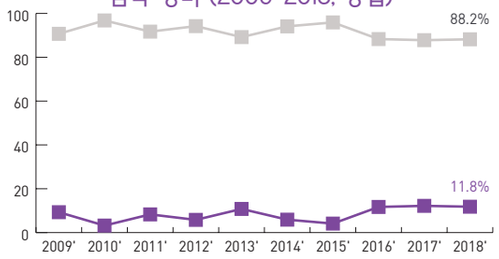


여성 남성

감독 성비 (2009-2018, 개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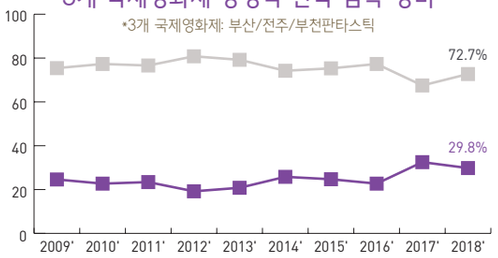


감독 성비 (2009-2018, 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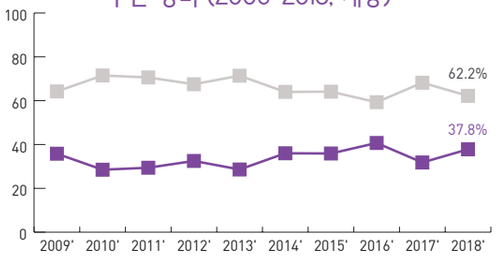
3개 국제영화제 상영작 한국 감독 성비

*3개 국제영화제: 부산/전주/부천판타스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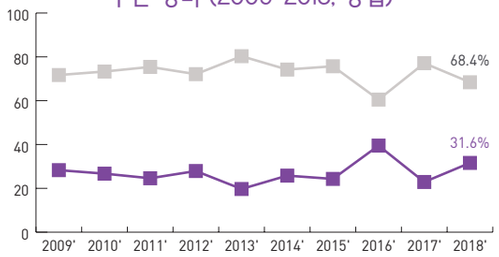


BECHDEL DAY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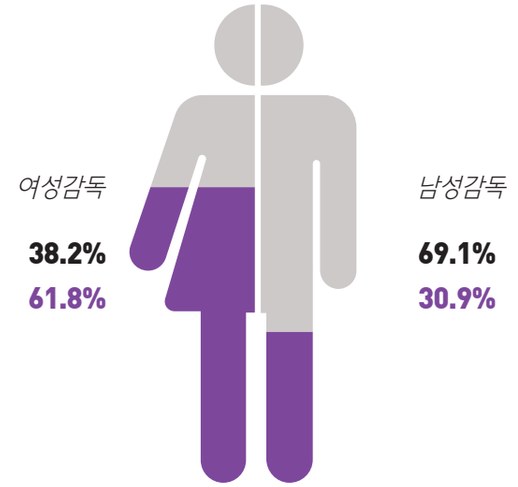
주연 성비 (2009-2018, 개봉)



주연 성비 (2009-2018, 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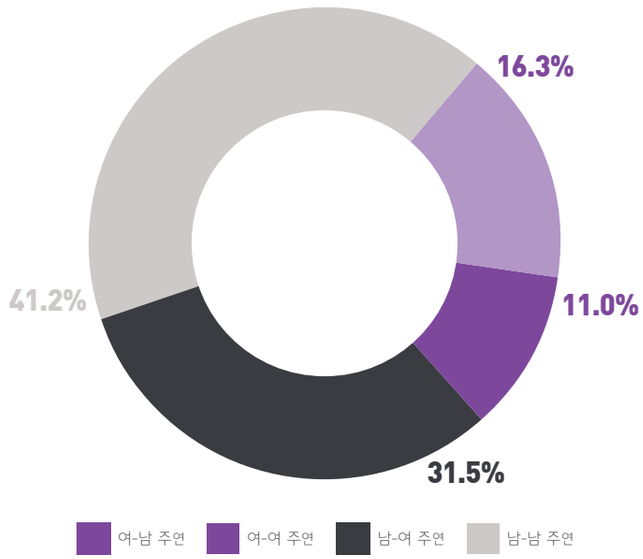


감독과 주연 성별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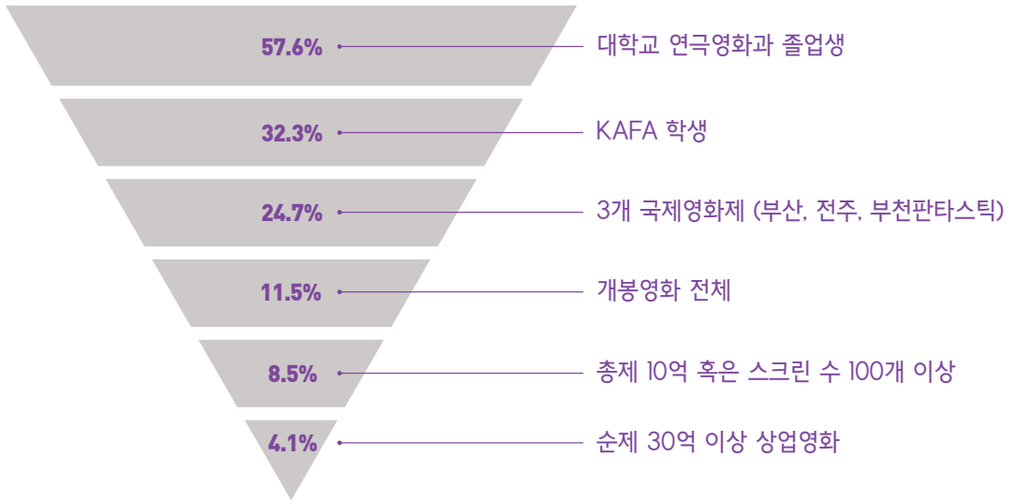


여성감독 연출 전체 136편 중 남성 주연 52편
여성 주연 84편
남성감독 연출 전체 1,257편 중 남성 주연 869편
여성 주연 388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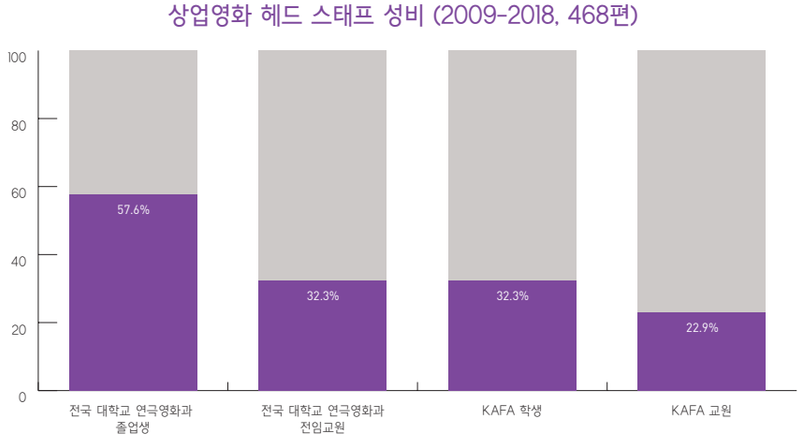
주연 1-주연2 상업영화 (2009-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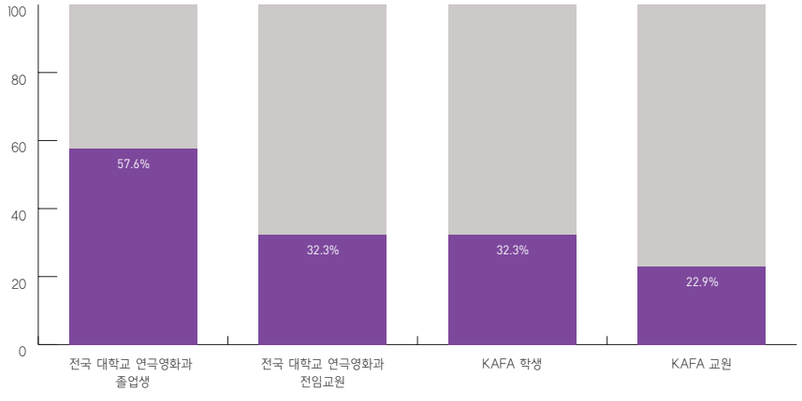
경력 단계별 여성 비율



상업영화 헤드 스태프 성비 (2009-2018, 468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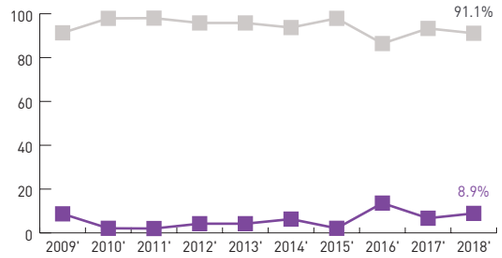


상업영화 헤드 스태프 성비 (2009-2018, 468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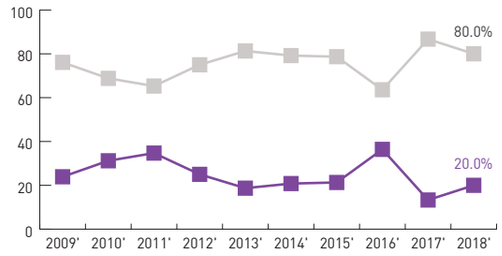


한국영화 캐릭터 성인지 분석 (2009-2018년 흥행 50위 영화 468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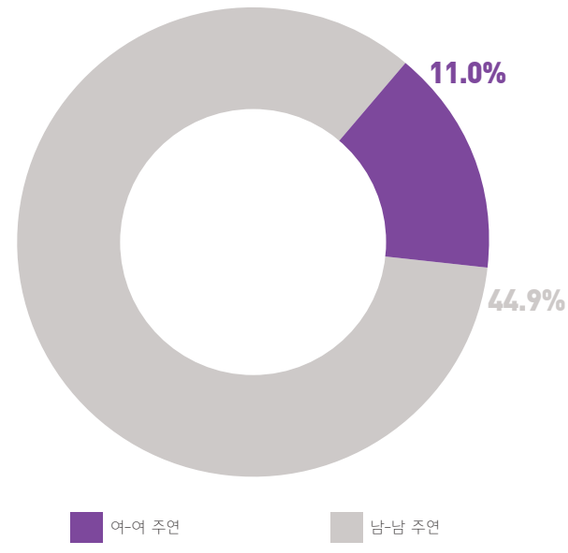
흥행 50위 감독 성별 비율 (2009-2018)



흥행 50위 주연 성별 비율 (2009-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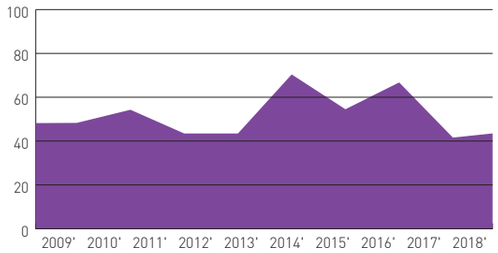
여-여, 남-남 주연 흥행 50위 영화 (2009-2018)



벡델 테스트

1. 이름 있는 여성이 2명 이상 등장하는가?
2. 두 여성이 서로 대화하는가?
3. 남성에 대한 이야기 외의 대화를 나누는가?

벡델 테스트 (2009-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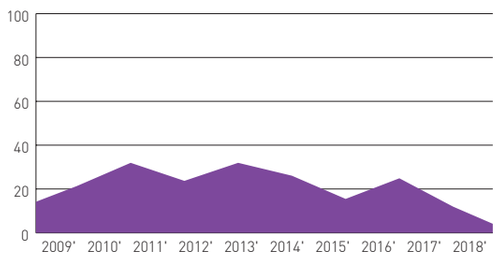
다양성 테스트

1. 분석대상
   - 성적 소수자
   - 장애인
   - 다양한 인종·종족·국가

2. 조사항목
   - 해당 정체성의 인물 존재 여부
   - 주인공 여부
   - 스테레오타입화 여부

다양성 테스트 (2009-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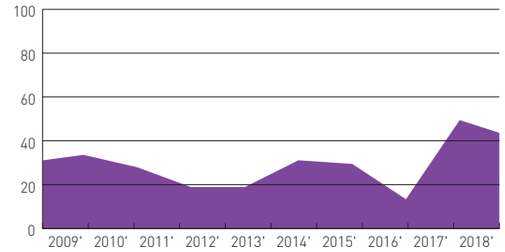
*가중치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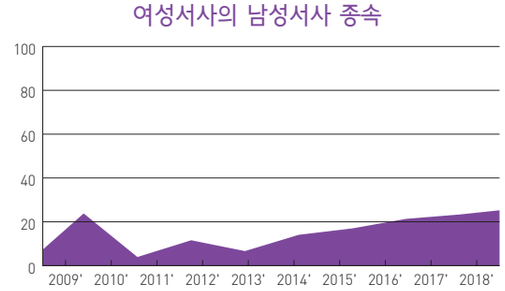
여성 스테레오타입 테스트

1. 남성의 구출을 받는가?
2. 남성 인물을 곤경에 빠트리는가?
3. 남성집단의 구색 맞추기나 감초로만 소비되는가?
4. 돌봄이 의무나 본성으로만 부여되는가?
5. 일차원적 이성애 로맨스 대상으로만 국한되는가?
6. 과도한 성애화의 대상으로 한정되는가?
7. 자기 서사 없이 범죄의 피해자로 전시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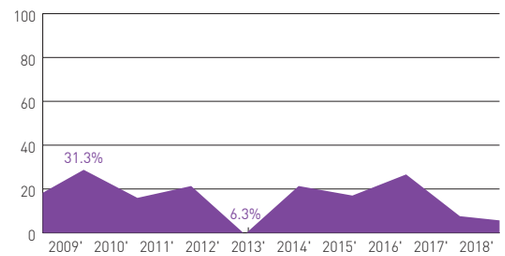
여성 스테레오타입 지수



여성서사의 남성서사 종속



여성연대 서사



당신은 한국영화의 성평등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본 발제자료는'KOFIC 연구 2020-06 한국영화 성평등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저자 : 조혜영)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외 사례

· **미국:** 타입스업, 지나 데이비스 연구소, 아넨버그 포용전략, 선댄스 인스티튜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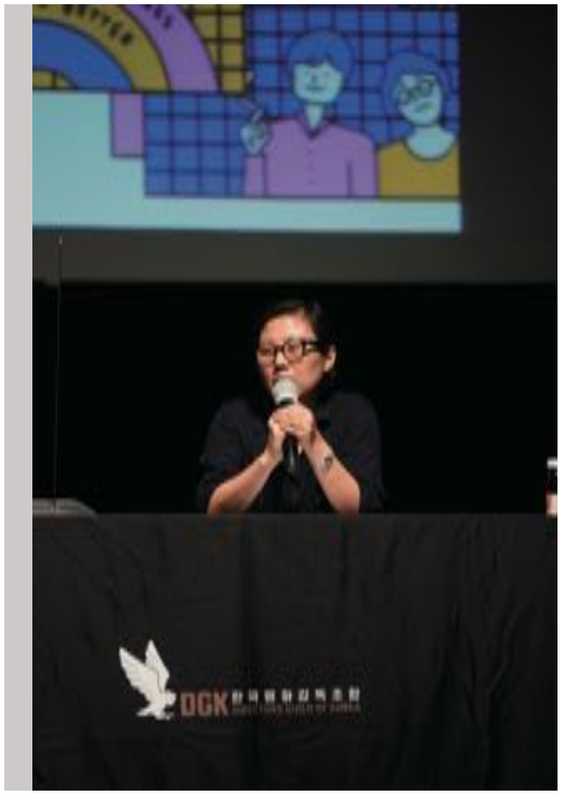
· **스웨덴:** 공공기금에서 성별 균형을 이루고, 현재는 상업영화의 성별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 진행

· **영국:** 지원사업에 '다양성 표준'을 고안하고, 지원받는 모든 창작자와 회사는 이 표준을 준수해야 함. 다양성 표준은 성별, 인종, 성적정체성, 장애와 관련해 인구구성대비 비율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함.

· **오스트레일리아:** 유급임금지원, 영화인의 돌봄노동 조사보고서 작성, 공공기금의 성별 균형을 목표로 지원사업의 평가기준을 바꾸고 경력 파이프라인, 이야기, 사업대표 등에 걸쳐 여성 창작자 지원.

·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는 성평등 전략을 세우는 데 감독조합의 강력한 요청과 협조가 있었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1. 핵심 창작자의 성별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공공기관의 지원사업 설계
2. 영화 고등 교육기관의 교수 및 학생의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성인지 관점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3. 다양한 관객 개발과 성인지 미디어 리터러시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4. 한국사회에서 과소재현 된 이야기에 지원
5. 유급임금지원을 통해 성별불균형이 극심한 부서나 경력단절 된 여성의 일자리 지원
6. 성인지 관점의 영화산업 분석 보고서 지원
7. 독립과 상업영화, 공공기관과 시장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 론칭



Appendix

02

심포지엄
발제 자료 Ⅱ, Ⅲ

II, III : AI가 바라본 벡델초이스10

한국영화,
누가 만들고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2017년 할리우드에서 미투 운동이 촉발된 이후 남성 중심적인 영화산업에 대한 성찰과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영화에서 남성과 여성 캐릭터를 얼마나 편향적으로 묘사하고 있는지 AI를 통해 분석한 결과를 2019년 논문으로 발표했다. 이 논문에서는 2017년과 2018년 개봉한 한국영화와 할리우드 영화 가운데 흥행 순위와 장르 다양성 등을 감안, 각각 20편씩 총 40편의 영화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 감정의 다양성, 공간적 역동성, 공간적 점유도, 시간적 점유도, 평균 연령, 지적 이미지, 외양 강조도, 주변 물체의 빈도와 종류의 여덟 가지 지표로 분석했다. 대부분의 영화에서 여성 캐릭터는 남성 캐릭터에 비해 훨씬 더 편향적으로 묘사되고 있음을 분석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할리우드 영화보다 한국영화에서 훨씬 더 심화되고 있었다.

최근 여성이 주연을 맡은 이야기나 여성 감독이 연출한 영화에 대한 관객들의 지지가 커지고 있다. 2018년을 기점으로 눈에 띄는 여성 중심 영화들이 많이 개봉했다. 특히 <82년생 김지영>은 여성 감독이 연출하고 여성이 주연을 맡아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겪는 불평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 한국영화 흥행 7위를 기록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러한 여성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는 독립영화에서 훨씬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독립영화에서는 10대부터 40대까지 넓은 연령대의 다양한 여성의 이야기를 영화에서 다루고 있었다. 이 중 벡델초이스10에서는 독립영화에서 이례적으로 14만 명의 관객을 확보한 <벌새>, 키치한 매력으로 하나의 장르를 만들어 가고 있는 이옥섭 감독의 <메기>, 여자의 몸 그 이상을 말하는 <아워 바디>, 10대의 눈으로 바라본 어른들의 이야기 <우리집> <미성년>, 상업영화에서는 잘 찾아볼 수 없는 30·40대 여성의 이야기 <윤희에게> <프랑스여자> <찬실이는 복도 많지>, 그리고 남자 야구부에서 고군분투하는 여자 투수의 이야기를 다룬 <야구소녀>와 상업영화 <82년생 김지영>을 포함한 10편을 선정해 여성 영화 속 남성 캐릭터와 여성 캐릭터의 묘사를 AI 분석했다.

이번 분석에서는 등장 인물별 감정의 다양성, 공간 점유율, 시간 점유율, 나이, 안경 착용 여부, 그리고 주변 물체의 종류, 여섯 가지의 지표를 통해 남녀 캐릭터의 묘사를 분석했다. 여성 중심의 영화들을 분석한 만큼 공간 점유율과 시간 점유율의 수치에 있어서는 여성 캐릭터가 남성 캐릭터보다 훨씬 더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감정의 다양성, 나이, 안경, 주변 물체의 종류에 있어서는 여성 영화들을 분석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 캐릭터들이 편향적으로 묘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감정의 다양성(Emotional Diversity)

화를 내거나 경멸하는 능동적 감정에서는 남성 캐릭터가,
슬프거나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수동적 감정에서는 여성 캐릭터의 수치가 높게 나왔다.
여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더라도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감정상태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감정의 다양성' 수치가 높다는 것은 한 캐릭터에서 **화남, 역겨움, 경멸, 두려움, 행복, 놀람, 평온함, 슬픔 등 8개의 감정**이 다양하게 측정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번 분석에서는 화남, 역겨움, 경멸의 감정은 능동적 감정으로, 그리고 행복, 놀람, 평온함, 슬픔의 감정은 수동적 감정으로 해석하여 Face API 가 측정한 남녀 캐릭터의 감정 수치를 바탕으로 감정의 다양성 수치를 도출했다.

감정의 다양성 지표에서 남성과 여성 캐릭터의 수치는 여성 0.85, 남성 0.876으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벡델초이스10 영화 10편 중 6편(<82년생 김지영> <미성년> <메기> <아워 바디> <우리집> <윤희에게>)에서 남성 캐릭터의 감정의 다양성이 여성 캐릭터보다 높게 나왔으며, 이 중 <메기>에서 남성 캐릭터와 여성 캐릭터의 감정 다양성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여성 캐릭터의 감정 다양성이 높게 측정된 영화 4편(<야구소녀> <찬실이는 복도 많지> <프랑스여자> <벌새>) 중에서는 <벌새>에서 남성 캐릭터와 여성 캐릭터의 감정 다양성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2019년 상업영화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성 캐릭터의 감정 다양성이 여성 캐릭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여성: 0.897 남성: 1.0828). 하지만 여성 중심의 이야기를 하는 영화를 중심으로 분석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 캐릭터와 여성 캐릭터의 감정 다양성 수치는 남성 캐릭터가 조금 더 높거나,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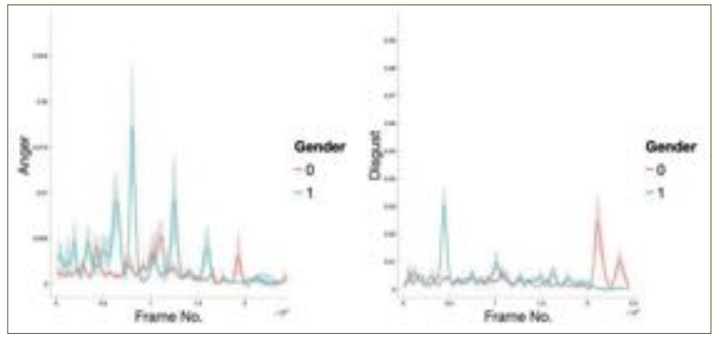


<메기>(좌), <벌새>(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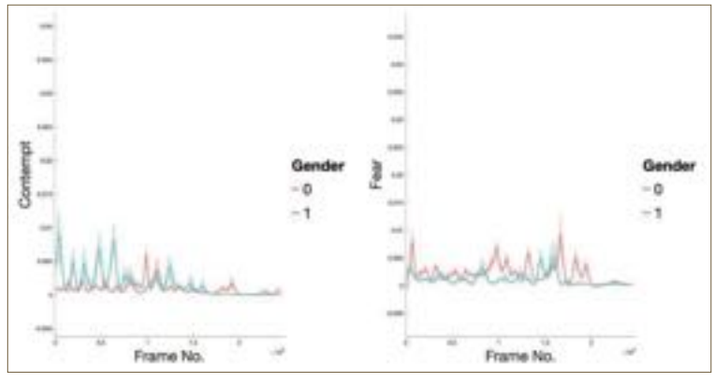
2019년 상업영화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성 캐릭터의 감정 다양성이 여성 캐릭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여성: 0.897 남성: 1.0828). 하지만 여성 중심의 이야기를 하는 영화를 중심으로 분석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 캐릭터와 여성 캐릭터의 감정 다양성 수치는 남성 캐릭터가 조금 더 높거나,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특정한 장르에서만 이야기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독립 영화이기에 제작비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분석을 한 10편의 영화 대부분이 드라마 장르이다. 비교적 감정의 변화 폭이 큰 액션, 코미디, 로맨스 장르가 아니기에 남녀 캐릭터의 감정 다양성 수치가 유사하게 측정된 것으로 보인다. 영화 <메기>의 경우 드라마 외에도 코미디, 미스터리 장르로 분류되는데, 10편의 영화 중 남녀 캐릭터의 감정 다양성의 수치가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여성: 0.8975 남성: 1.16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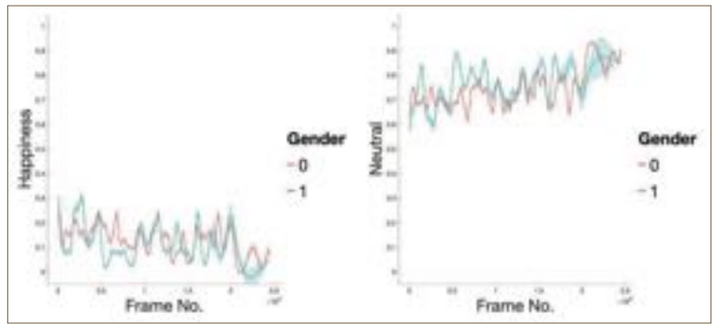
화남, 역겨움, 경멸, 두려움, 행복, 놀람, 평온함, 슬픔, 각각의 감정 수치도 남녀 캐릭터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화를 내거나 경멸하는 능동적 감정에서는 남성 캐릭터가, 그리고 슬프거나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수동적 감정에서는 여성 캐릭터의 수치가 높게 나왔다. 2019년 상업영화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에서도 남성 캐릭터는 능동적 감정으로, 여성 캐릭터는 수동적 감정으로 묘사되고 있음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여성 영화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분석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더라도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감정 상태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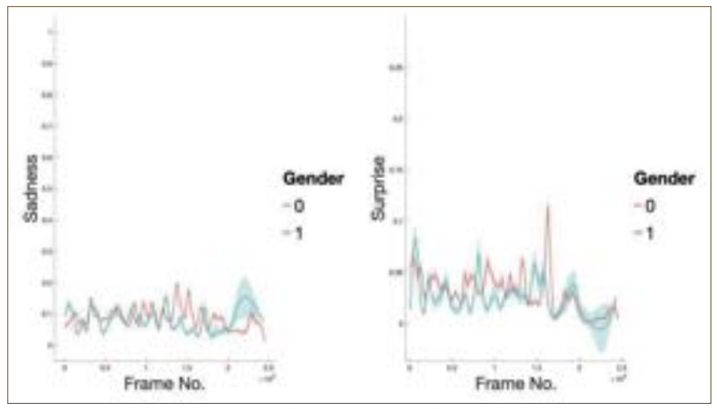
Face API '감정의 다양성' 수치 중 '화'(좌), '역겨움'(우)



Face API '감정의 다양성' 수치 중 '경멸'(좌), '두려움'(우)



Face API '감정의 다양성' 수치 중 '행복'(좌), '평온함'(우)



Face API '감정의 다양성' 수치 중 '슬픔'(좌), '놀람'(우)

2. 공간 점유율(Spatial Occupancy), 상대적 공간 점유율(Related Spatial Occupancy)

한국영화의 경우, 남성 캐릭터를 여성 캐릭터보다 훨씬 더 크게 화면에 묘사하고 있다.
(여성: 185, 남성: 220)
이를 통해서 한국 영화가 여성 캐릭터에 비해
남성 캐릭터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지를 알 수 있었다.

'공간 점유율'이란 촬영된 **화면에서 배우의 얼굴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공간 점유율 지표의 경우, 10편의 영화 모두 여성 캐릭터가 남성 캐릭터보다 크게 묘사된 것으로 나타났다(여성: 212, 남성: 181). 2019년 상업영화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 캐릭터가 남성 캐릭터보다 훨씬 더 작게 화면에 묘사되고 있었다(여성: 196 남성: 213). 특히, 한국영화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한국영화의 경우 남성 캐릭터를 여성 캐릭터보다 훨씬 더 크게 화면에 묘사하고 있었다(여성: 185, 남성: 220). 감독은 등장인물의 감정을 자세하게 다루거나, 중요한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클로즈업(Close-up)과 같은 기법을 사용해 등장인물의 얼굴을 화면에 크게 강조하곤 한다. 2019년 연구 결과는 한국영화에서 여성 캐릭터에 비해 남성 캐릭터가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는 것을 나타냈다. 한편 벡델초이스10에 선정된 영화는 10편 모두 여성 캐릭터가 남성 캐릭터보다 화면에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여성: 212, 남성: 181). 여성 중심 서사를 다룬 영화들이기에 여성을 화면에 주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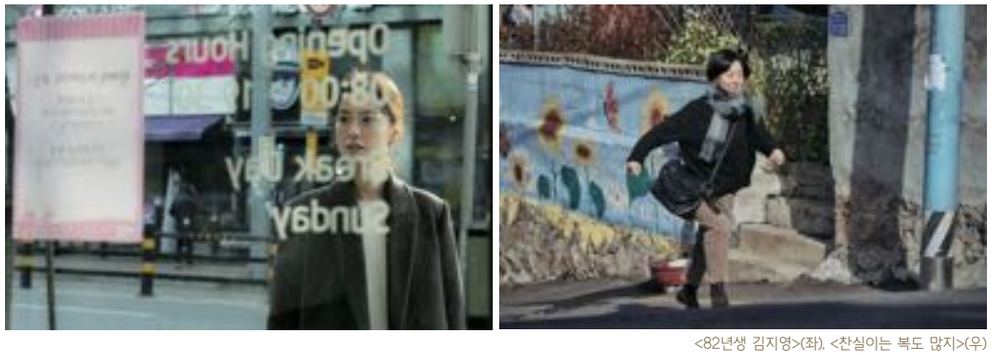
<야구소녀>(좌), <프랑스여자>(우)

'상대적 공간 점유율'이란 남성과 여성 캐릭터가 같은 장면에 동시에 등장했을 때, 각 인물의 얼굴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남성과 여성 캐릭터가 동시에 등장했을 때에는 벡델초이스10 선정, 10편의 영화 중 8편에서 여성 캐릭터가 남성 캐릭터보다 작게 묘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야구소녀>와 <프랑스여자>의 경우, 여성 캐릭터가 남성 캐릭터보다 크게 감지되었는데 <야구소녀>의 경우 이야기의 특성상, 여러 명의 남자 야구 선수들이 여자 투수를 뒤에서 지켜보는 구도가 많이 등장해서 여성 캐릭터가 남성 캐릭터보다 크게 감지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집>의 경우 10대 초반의 여자 아이와 성인 남자가 함께 감지되어 남녀 캐릭터의 상대적 공간 점유율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는 남성과 여성의 얼굴 크기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특히 카메라로 찍은 화면은 실제 크기를 왜곡하기에, 화면에 찍혔을 때에는 여성과 남성의 얼굴 크기는 더욱 차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남녀의 얼굴 크기를 차치하더라도, 영화에서 무의식적으로 남성 캐릭터를 주요하게 찍는 것은 아닌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3. 시간 점유율(Temporal Occupancy)

한국 영화에서는 남성 캐릭터의 시간 점유율이 여성 캐릭터의 3배 가량 높게 나타나면서,
압도적으로 남성 중심의 서사가 영화로 만들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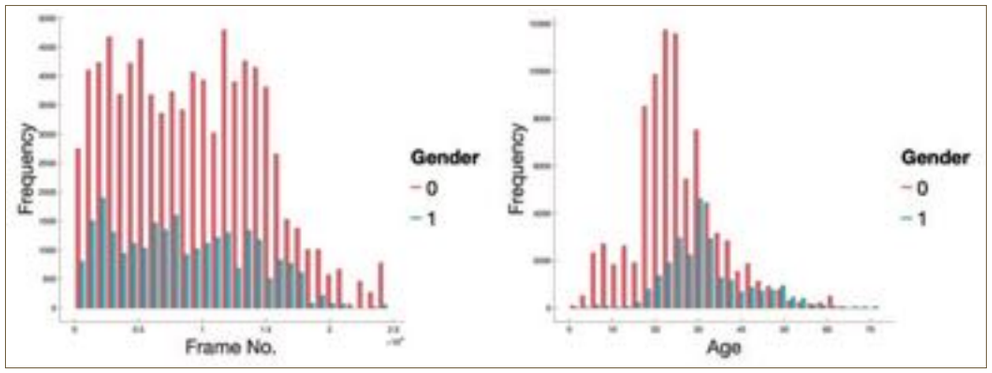


<82년생 김지영>(좌), <찬실이는 복도 많지>(우)

시간 점유율(Temporal Occupancy) 지표를 통해 **영화 전체에서 남녀 캐릭터의 빈도 수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여성 캐릭터가 남성 캐릭터보다 시간 점유율이 훨씬 더 높았다 (여성: 0.4789, 남성: 0.14). 여성이 주연을 맡아 극을 이끌어 나가는 영화를 대상으로 분석했기에 여성과 남성 캐릭터의 시간 점유율 차이가 크게 차이가 났다.

2019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할리우드와 한국영화 모두 남성 캐릭터의 시간 점유율이 여성 캐릭터보다 훨씬 더 높았다. 특히 한국영화에서는 남성 캐릭터의 시간 점유율이 여성 캐릭터의 세 배가량 높게 나타나면서 압도적으로 남성 중심의 서사가 영화로 만들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벡델초이스10 영화 10편 중 9편에서 여성 캐릭터의 시간 점유율이 남성 캐릭터보다 높았다. 유일하게 남성 캐릭터의 시간 점유율 수치가 여성 캐릭터보다 높게 나온 <야구소녀>는 남성 중심의 야구부에서 유일한 여성 선수의 생존기를 다룬 영화인 만큼 남성 캐릭터의 등장 빈도 수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Face API '공간점유율'(좌), '시간점유율'(우)

4. 나이(Age)

2019년 상업영화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 여성 캐릭터는 평균 26세.
남성 캐릭터는 평균 33세로 나타났다.
영화에서 캐릭터의 나이는 실제 배우의 캐스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어린 여성의 이야기만 다뤄진다면
나이 든 여성 배우들이 더이상 스크린에서 설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우리집>(좌), <윤희에게>(우)

'나이' 지표는 **영화에 등장하는 남녀 캐릭터의 Face API 나이 측정값을 의미**한다. 벡델초이스10 영화에 등장하는 여성의 평균 나이는 25.3세, 남성의 평균 나이는 31.6세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여성 캐릭터가 남성 캐릭터보다 6세 이상 어리게 묘사되고 있음을 뜻한다. <미성년> <벌새> <우리집>의 경우 10대 초·중반의 여성 캐릭터가 주인공이므로 이를 제외하더라도 여성의 평균 나이는 28세, 남성의 평균 나이는 33세로 나타났다. 2019년 연구에서 여성 캐릭터는 평균 26세, 남성 캐릭터는 평균 33세로 나타났다.

영화에서 캐릭터의 나이는 실제 배우의 캐스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어린 여성의 이야기만 다뤄진다면 나이 든 여성 배우들이 더 이상 스크린에서 설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초등학생의 이야기를 다룬 <우리집>에서부터 중년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윤희에게>까지, 여성 주인공의 나이 폭을 넓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평균 나이가 남성의 평균 나이보다 낮았다. 이러한 측정 결과는 영화에서 여성 캐릭터는 20~30대를, 남성 캐릭터는 30~40대를 대변한다는 이전의 연구 결과의 경향을 다시금 보여준다.

그래프를 살펴보면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의 이야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여성의 나이 그래프는 10대에서부터 60대까지 고루 퍼져 있다. 하지만 전체 그래프의 분포를 자세히 살펴보면 여성 캐릭터는 20~30대에, 남성 캐릭터는 30~40대에 밀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안경(Glasses)

<우리집>을 제외한 모든 영화에서 남성 캐릭터가 여성 캐릭터보다 안경을 많이 착용하고 나왔다.
영화에서 남성 캐릭터들이 안경을 많이 쓰고 등장하고,
여성 캐릭터들은 그렇지 않다면 대중들은 매체에서 남성들은 안경을 쓰는 것이 자연스럽고,
여성들은 그렇지 않다는 편견을 가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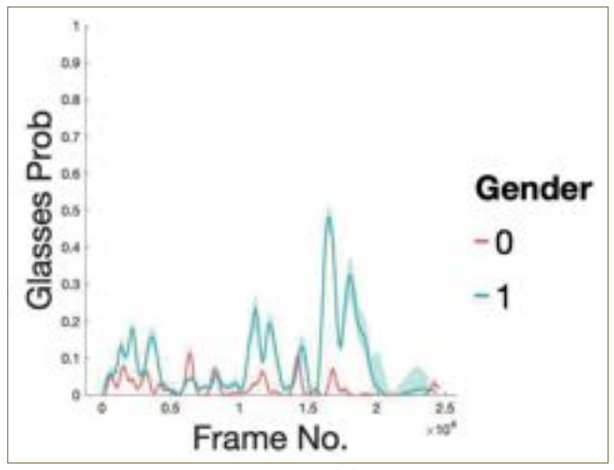
'안경' 지표는 영화에 등장하는 **남녀 캐릭터의 안경 착용 여부**를 의미한다. 남성 캐릭터가 여성캐릭터보다 안경을 착용한 모습으로 영화에 등장한다 (여성: 0.025, 남성: 0.113). <우리집>을 제외한 모든 영화에서 남성 캐릭터가 여성 캐릭터보다 안경을 많이 착용하고 나왔다.




<미성년>(좌), <아워 바디>(우)

이러한 경향은 2019년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2019년 분석 대상 영화에서는 남성이 여성 캐릭터보다 두 배 이상 안경을 더 많이 착용하고 나왔다. 영화에서 남성 캐릭터는 지적인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안경을 씌우고, 여성 캐릭터는 미적인 효과 때문에 안경을 씌우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상업영화뿐만 아니라 여성 영화에서도 여성에게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미적 규범을 적용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영화에서 비춰지는 이미지는 관객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 영화에서 남성 캐릭터들이 안경을 많이 쓰고 등장하고 여성 캐릭터들은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은 남성이 안경을 쓰는 것은 자연스럽고 여성이 안경을 쓰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는 편견을 갖게 될 수 있다.



Face API '안경'

6. 주변 물체의 종류(Type of Surrounding Objects)

여성 캐릭터는 의자, 컵, 책, 물병과 함께 많이 등장했고
남성 캐릭터의 경우 의자, 컵, 자동차, TV 모니터, 식물과 함께 많이 등장했다.
여성 중심의 영화를 분석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에게 씌워진 편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주변 물체의 종류' 지표는 **영화의 장면에서 남녀 캐릭터가 등장했을 때 어떤 물체가 함께 등장했는지**를 나타낸다. 여성 캐릭터는 의자, 컵, 책, 물병과 함께 많이 등장했고, 남성 캐릭터는 의자, 컵, 자동차, TV 모니터, 식물과 함께 많이 등장했다.




<82년생 김지영>(좌), <찬실이는 복도 많지>(우)

2019년 분석에서도 여성은 의자와 같은 가구와 함께, 남성은 자동차와 함께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벡델초이스10의 영화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성 캐릭터는 여성 캐릭터보다 약 4%p 더 자동차와 함께 등장했으며(여성: 5.21%, 남성: 9.70%), 여성 캐릭터는 남성 캐릭터보다 약 9%p 더 의자와 함께 등장했다(여성: 23.91%, 남성: 13.12%). 여성 중심의 영화를 분석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에게 씌워진 편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Word Cloud '여성 캐릭터'(상), Word Cloud '남성 캐릭터' (우)

Appendix

03

벡델데이2020
현장 대본

벡델데이2020 오프닝

(출연: 민규동 조직위원장, 이화정 프로그래머)

민규동 안녕하세요. 한국영화감독조합 대표이자 벡델데이2020 조직위원장인 민규동입니다. 벡델데이2020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올해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영화감독조합이 주관하는 '벡델데이2020' 행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명의 심사위원들이 한국영화계의 성평등 문화에 기여한 10편의 영화를 선정한 '벡델초이스10'과 감독, 배우, 시나리오작가, 제작자 등 영화인을 대상으로 4명의 '벡델리안'을 선정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작품들을 소개하고 벡델리안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이화정 먼저 '벡델'이라는 명칭부터 궁금하실 텐데요. 대중문화 콘텐츠에서의 성평등을 가늠하는 지수로 널리 알려진 '벡델 테스트'(Bechdel test)는 미국의 여성 만화가 앨리슨 벡델이 고안한 것으로, 해당 작품에 여성이 얼마나 자주, 주도적인 캐릭터로 등장하는지를 평가합니다. 기준은 간단합니다. 첫째, 영화 속에 이름을 가진 여성 캐릭터가 최소 두 사람이 나와야 하며 둘째, 이들이 서로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셋째, 이들의 대화 소재나 주제는 남자 캐릭터에 관한 것만이 아니어야 합니다.

민규동 하지만 얼핏 간단해 보이는 이 기준을 통과하는 한국영화가 드물다는 것이 영화계의 현실이죠. 바로 그런 문제의식에서 벡델데이2020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화정 네, 그리고 스토리텔링으로 한정된 벡델 테스트의 기존 기준을 산업 전반, 즉 고용의 성평등까지 아우르며 더 넓게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벡델데이2020은 기존 벡델 테스트의 3개 기준 외에 감독, 제작자, 시나리오 작가, 촬영감독 중 1명 이상이 여성 영화인일 것, 여성 단독 주인공 영화이거나 또는 여성 캐릭터의 역할과 비중이 남성 주인공과 동등할 것, 여성 캐릭터가 성별 정형화와 고정관념에 갇힌 스테레오 타입으로 재현되지 않을 것,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적 시선을 담지 않을 것 등 4개의 기준을 더했습니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9명의 심사위원이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개봉한 한국영화 가운데 선정한 10편의 영화가 바로 벡델초이스10입니다.

민규동 저도 심사에 참여했는데요, 어떤 영화가 선정됐는지 화면으로 만나 보시죠.

벡델초이스10 하이라이트 영상 재생

혹시 이 10편 중에서 아직 보지 않은 작품이 있다면, 꼭 한 번 관람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벡델 테스트를 통과한 한국영화가 딱 저 10편밖에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작품들 중에서 심사를 거쳐 10편의 모범적인 영화를 선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벡델 테스트를 통과한 영화들만 좋은 영화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기준을 염두에 두고 영화를 만드는 태도가 좋은 영화를 만들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국영화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영화 속 벡델 테스트에 대해 얘기하는 1부와 벡델리안을 초대해 대화를 나누는 2부가 이어질 텐데요. 지금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새로운 한국영화를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규동 감독 인사하고 퇴장

심포지엄 "한국영화, 벡델 테스트와 만나다"

(출연: 이화정 프로그래머, 조혜영 영상예술학 박사, 윤가은 <우리집> 감독, 이동하 영화사레드피터 대표)

이화정 안녕하세요. '한국영화, 벡델 테스트와 만나다' 진행을 맡은 이화정 프로그래머입니다. 차별 없는 한국영화를 만들기 위한 한걸음, 벡델데이2020을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10년간 한국영화 제작 전반을 벡델 테스트 분석을 통해 돌아보며, 미래의 한국영화가 지향해야 할 양성평등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조혜영 평론가를 모셔서 '스크린 안과 밖 모두의 성평등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프로그래머를 역임하셨던 조혜영 평론가는 영상예술학 박사로서 디지털 이미지와 페미니즘을 가로지르는 연구를 오래도록 해오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10여 년 동안의 한국영화 성인지 데이터 분석과 해외 사례 소개를 통해 '한국영화에 성평등이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그럼, 조혜영 평론가를 모셔보겠습니다. 벡델데이2020에 참여해 주신 간단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혜영 *현장 답변*

이화정 이런 따끈따끈한 연구 결과를 벡델데이2020 행사를 통해 발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조혜영 *<스크린 안과 밖, 모두의 성평등을 위하여> (약 25분)*

이화정 조혜영 평론가님 흥미로운 발제 정말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번엔 좀 색다른 분석으로 한국영화의 성평등 현황을 살펴보려 합니다. 바로 '벡델 테스트와 인공지능의 만남'입니다. 올해 벡델데이2020을 준비하며 벡델초이스10과 벡델리안을 선정하기 위해 영화감독, 배우, 평론가로 된 9명의 심사위원단을 구성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AI 심사위원도 명예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한국영화, 특히 벡델초이스10의 성평등 지수를 분석했습니다. 시각 예술인 영화의 특성상, 대사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벡델 테스트가 갖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죠? 때문에 사람의 얼굴을 감지해 알고리즘 분석을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페이스 API를 활용해 벡델초이스10의 성평등 지수를 보다 면밀히 검토해 봤습니다. AI 심사위원은 6개의 지표를 중심으로 영화의 성평등을 가늠했다고 합니다. 감정의 다양성, 공간 점유율, 시간 점유율, 나이, 안경, 주변 물체의 종류가 여섯 가지 지표라고 하는데요, 벡델초이스10의 작품들이 해당 지표에서 어떤 결과들을 보였을지 지금부터 AI 심사위원의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 AI 심사위원 결과 발표, 이화정 모더레이터의 PPT 진행 ****
(자막: KAIST 인터랙티브 미디어랩 이병주)

첫 번째 지표인 감정의 다양성 분석입니다. 카이스트 미디어랩의 과거 연구에 따르면 영화에서 여성 캐릭터는 남성 캐릭터에 비해 단편적으로 묘사되는 경향이 짙다고 하는데요, 영화와 달리 실제 사회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감정 다양성이 크고, 또 건강한 사람일수록 감정의 다양성이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벡델초이스10의 영화들은 어땠을까요?

AI 음성파일 듣기

이화정 두 번째는 공간 점유율 분석입니다. 남녀 캐릭터의 숏 사이즈를 비교해 상대적으로 어느 캐릭터가 화면에 크게 잡히는지를 살펴보고 중요도를 가늠하는 지표입니다. 연구를 진행하기 앞서 608명의 관객을 대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남녀 캐릭터의 영화 속 장면을 물어봤는데요. 남성 캐릭터의 경우 액션 신에서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고, 여성 캐릭터는 대화 장면이 가장 익숙하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남녀 캐릭터의 공간 점유율을 바탕으로 캐릭터의 역동성을 측정해 봤습니다.

AI 음성파일 듣기

이화정: 세 번째는 시간 점유율입니다. 공간만큼 영화 속에서 시간을 얼마나 많이 점유하느냐가 캐릭터의 중요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죠? 여성 캐릭터는 남성 캐릭터에 비해 주도적인 역할을 맡는 경우가 적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로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성평등한 것으로 나타난 벡델초이스10에서는 어땠을까요?

AI 음성파일 듣기

이화정: 스크린 속 여성 캐릭터는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다고 하는데요. 이는 여성은 젊은 모습만이 가치 있다는 문화적인 신념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관련 연구에 따르면, 영화 내에서 여성 캐릭터의 나이가 증가할수록 매력적인 사람으로 언급될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하네요. 이를 토대로 벡델초이스10을 '나이' 지표로 살펴봤습니다.

AI 음성파일 듣기

이화정: 나이에 이어 외모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로 '안경'을 분석했습니다. 미디어에서는 곧잘 여성의 신체적인 특징을 왜곡하고 부각시키죠. 가슴이나 다리 등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해 성적 대상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영화가 외모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가늠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게 '안경'입니다. 실제로 남성 캐릭터를 적극적이고 전문적이며, 지적인 이미지로 묘사하기 위해 안경을 씌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아시아계나 백인 남성에게 이러한 경향성이 심화된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AI 음성파일 듣기

이화정: 마지막 지표, 주변 물체의 종류 분석해 봤습니다. 영화에서 남성은 정치인, 지도자, 사업가로 묘사되며 외부에서 활동하는 프로페셔널한 모습으로 많이 그려지지만 여성 캐릭터의 주요 관심사는 가족, 요리, 쇼핑, 결혼 등에 집중돼 있는 측면이 강하다고 하네요. 각각의 캐릭터들이 속하는 지위와 공간에 따라 그들과 함께 나오는 의상, 가구 등의 미장센도 달라집니다. 이 지표를 통해 남녀 각각의 캐릭터들이 영화에서 어떤 미장센으로 표현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AI 음성파일 듣기

이화정 AI 명예 심사위원의 흥미진진한 문제 제기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조혜영 평론가님 외에 연구 결과 발표에 누구보다도 귀 기울이고 계셨을 두 분을 모셨는데요. 이제, 차별 없는 영화를 위한 첫걸음, 영화계 현장으로 가 봅니다. 영화를 기획하고 만드는 제작자와 감독은 현장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벡델초이스10으로 선정된 작품 <우리집>의 윤가은 감독님과 <미성년>을 제작하신 영화사레드피터의 이동하 대표님 모시고 이에 대해 이야기 나눠 봅니다. 앞서 발제를 해주신 조혜영 박사님도 함께 모시고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벡델데이2020의 벡델초이스10으로 선정되신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윤가은 *현장 답변*

이동하 *현장 답변*

이화정 조혜영 평론가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제작 현장의 성비 불균형이 결국 관객과 만나는 최종 콘텐츠의 불균형으로까지 이어지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간의 연구를 통해 가장 크게 절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조혜영 *현장 답변*

공간이나 소품의 활용이 성평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 앞으로는 이 기준을 갖고 영화들을 '매의 눈'으로 테스트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안경'의 활용이 눈에 띄네요. 얼마 전 여성 아나운서가 안경을 끼고 나온 것이 일종의 매스미디어의 기울어진 성평등을 향한 입장 표명처럼 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혹시 두 영화의 주인공들에게 안경을 씌워볼 생각은 안 하셨나요? 안경 이외에 스테레오타입을 벗어나기 위해 고려한 소품이 있었는지요?

윤가은 *현장 답변*

이동하 *현장 답변*

이화정 영화를 기획, 제작할 때 성별뿐만 아니라 '나이'라는 장벽도 차별로 작용합니다. <우리집>과 <미성년> 모두 우리가 생각하는 대중영화의 주인공 연령대를 정확히 비켜간 파격적인 주인공 구성입니다. <우리집>은 전작 <우리들>에 이어서 초등학생들을, <미성년>은 두 명의 중년 여성을 바라보는, 성인이 되기 전의 사춘기 여성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업영화 시장에서 주인공의 성별, 나이가 주는 벽이 상당한데요. 실제로 스타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어린 배우, 중년 여성 배우의 메인 출연이 주는 상당한 장벽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이동하 대표님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동하 *현장 답변*

이화정 윤가은 감독님께서는 <우리들>, <우리집>으로 이어지는, 감독님의 영화를 좋아하는 팬들이 이른바 '윤가은 유니버스'라고 부르는 작품들을 통해 그간 스크린에 조명되지 않았던 소녀들의 세계를 구현하였는데요. 소년, 사춘기 남성에게 할당된 '모험'과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어린 여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점에서,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영역을 개척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흔히들 여성 감독이라서 생각할 수 있는 접근이라는 말들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감독님의 의견은 어떤가요?

윤가은 *현장 답변*

이화정 발제를 통해서, 한국영화 산업의 헤드 스태프의 성비가 주는 창작의 불균형에 대해 짚어 주기도 하셨는데요. 실제로 참여자의 성비가 콘텐츠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하고, 그리고 개선 지점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혜영 *현장 답변*

이화정 <미성년>을 제작, 시장에서 경험하고 난 이후 작품들을 기획할 때 변화가 있었는지요. 특히 최근 대표님께서 제작하신 <반도>의 경우, 벡델 테스트를 통과한 것은 물론이고 수동성을 벗어난 진취적 캐릭터로 이정현-이레-이예원 배우가 활약을 하면서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세 명의 서로 다른 연령대의 여성 캐릭터가 등장하고, 더군다나 아무도 죽이지 않습니다.

이동하 *현장 답변*

이화정 그동안 한국영화의 여성 캐릭터들은 '우리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을 지나 성년이 되는 순간 스크린을 떠나야 했습니다. <우리집>과 <미성년>이라는 두 영화는 앞서 살펴본 집이라는 공간 점유율과 미성년이라는 나이의 경계를 넘어선 영화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처럼 영화는 우리 사회를 반영하고, 또 이끌어 가기도 한다는 점에서 책임감이 더해지는데요. 미투운동 이후 이 같은 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영화의 기획, 제작에 불러온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덧붙여 영화가 만들어진 이후 대중 관객과의 첫 만남인 모니터 시사 이후 폭력성이 강하거나 성평등적이지 않은 장면에 대한 지적도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는 짐작도 당연히 해보게 되는데, 이 같은 변화를 현재에도 체감하고 계시는지요?

이동하 *현장 답변*

한국영화계의 성평등 인식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한국영화감독조합에서 성폭력방지위원회를 신설해 성폭력 문제 방지 및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섰고, 그 결과물로 지난해에는 중·지·신(중지(Stop)·지지(Support)·신고(Report))이라는 행동강령을 발표하기도 했죠. 또한 이제는 영화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기도 합니다. 윤가은 감독의 경우 줄곧 어린 배우들과 함께했는데요. 현장에서 어린 배우를 대할 때 어떤 가이드, 지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윤가은 *현장 답변*

이화정 각자의 위치에서 영화계 성평등을 불러오기 위한 대안을 고민하실 텐데요. 더불어 벡델초이스10 선정 기준에서 더 추가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조항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자리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인사 말씀까지 듣고 마치겠습니다.

윤가은 *현장 답변*

이동하 *현장 답변*

조혜영 *현장 답변*

이화정 차별 없는 영화에 대한 논의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논의된 감독, 제작자, 학자, AI까지 다양한 분야의 의견이 수렴되어, 보다 평등한 영화가 더 많이 제작되길 기대해 보면서 이 자리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라운드테이블 "벡델리안과 차별 없는 영화를 말하다"

(출연: 변영주 감독, 김보라 배우, 김보라 <벌새> 감독, 이보람 <미성년> 작가, 김지혜 아토ATO 대표

변영주 안녕하세요. 벡델데이2020의 2부 라운드테이블 '벡델리안과 차별 없는 영화를 말하다' 진행을 맡은 영화감독 변영주입니다.

김보라 안녕하세요. 라운드테이블을 함께할 배우 김보라입니다. 이번 시간은 벡델리안 네 분을 모셔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벡델데이2020은 1부에서 만나봤던 벡델초이스10 외에 감독, 배우, 시나리오작가, 제작자, 그렇게 4명의 영화인을 벡델리안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변영주 김보라 배우가 올해 벡델초이스10 본심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목받는 배우가 벡델데이 행사에 함께해 주신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든든했는데요. 어떻게 올해 벡델데이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김보라 최근에 제가 OTT 플랫폼인 웨이브(WAVVE)와 한국영화감독조합, 수필름, MBC 방송사가 공동 기획하고 제작한 <SF8>이라는 작품에서, 이윤정 감독님이 연출한 <우주인 조안>에 출연했는데요. 이윤정 감독님도 본심 심사위원이기도 하시고 또 저를 심사위원으로 추천해주셨어요. 저 또한 이런 뜻깊은 행사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영주 감독님이야말로 저보다 오랜 시간 한국영화계에 몸담아 온 연출자로서 영화계 성평등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행사를 함께하시는 소감이 어떠신가요?

변영주 *현장 답변 후.*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벡델리안과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벡델리안을 한 분씩 모셔서 트로피를 수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영화의 누구를 벡델리안으로 선정했는지 스크린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과 함께 네 명의 벡델리안을 만나보시죠.

수상자 호명에 맞춰 <벌새> <우리집> <미성년> <윤희에게>까지 차례대로 영상 재생

김보라 그 첫 번째 주인공은 영화 <벌새>의 김보라 감독님입니다. 무대로 나와 주시죠. 시상에는 민규동 감독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김보라 감독 무대로 나오면, 사회자들은 그대로 있고 민규동 감독님이 트로피 전달

민규동 작품 <벌새>, 성명 김보라. 벡델데이2020의 비전과 함께하는 감독 김보라 님의 뜨거운 열정과 도전에 깊은 존경과 찬사를 보냅니다. 이에 '올해의 벡델리안 감독상'을 드립니다.

김보라 일단 저와 이름이 같은 감독님이라 괜히 더 기쁜데요. 심사위원들이 벡델초이스10편의 영화에 대해 추천사를 썼는데 <벌새>는 제가 직접 추천사를 써서 더 애정이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김보라 감독님의 간단한 소감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김보라(감독) *현장 답변 후 착석*

변영주 두 번째 벡델리안은 윤가은 감독의 <우리집>을 제작한 영화사 아토의 김지혜 대표입니다. 무대로 나와 주시죠. 시상에는 역시 민규동 감독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김지혜 대표 무대로 나오면, 사회자들은 그대로 있고 민규동 감독님이 트로피 전달

민규동 작품 <우리집>, 성명 김지혜. 벡델데이2020의 비전과 함께하는 탁월한 안목과 실천을 보여주신 제작자 김지혜 님께 존경과 찬사를 보냅니다. 이에 '올해의 벡델리안 제작자상'을 드립니다.

변영주 김지혜 대표는 <우리집>의 제작자이자 <우리들>을 제작한 영화사 아토의 공동대표입니다. 아토는 창립작 <우리들> 이후 <용순>, <홈>, <살아남은 아이>를 거쳐 다섯 번째 작품인 <우리집>을 내놓았습니다. '아토'는 '선물'의 순우리말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날 한국영화계가 받은 멋진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김지혜 대표님의 간단한 소감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김지혜 *현장 답변 후 착석*

김보라 세 번째 벡델리안은 영화 <미성년>의 시나리오를 쓴 이보람, 김윤석 작가입니다. 아쉽게도 <미성년>의 연출을 맡고 배우로 출연까지 하신 김윤석 님은 스케줄 문제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원작이 된 연극을 쓰고 영화 버전까지 참여한 이보람 작가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시상에는 쭉 민규동 감독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보람 작가 무대로 나오면, 사회자들은 그대로 있고 민규동 감독님이 트로피 전달

민규동 작품 <미성년>, 성명 이보람. 벡델데이2020의 비전과 함께하는 빼어난 각본으로 시대와 호흡하는 이야기의 위대함을 알려주신 작가 이보람, 김윤석 님께 존경과 찬사를 보냅니다. 이에 '올해의 벡델리안 작가상'을 드립니다. 김윤석 감독님은 주최 측으로 수상 소감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보람 작가와의 멋진 협업으로 완성된 각본으로 상을 받게 되어 정말 영광이라고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김보라 <미성년>은 아무래도 제가 작품 속에서 연기한 인물과 비슷한 또래가 주인공이다 보니 더 흥미와 애정을 가지고 감상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십대 여성 2명과 중년 여성 2명이 서로 이해하고 노력하고 연대하는 작품이 없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스토리텔링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럼 이보람 작가님의 간단한 소감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보람 *현장 답변*

변영주 네 번째 벡델리안은 영화 <윤희에게>의 주인공 김희애 배우입니다. 아쉽게 김희애 배우도 스케줄 문제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김희애 배우와 벡델 테스트를 통과한 작품 <허스토리>를 연출하신 민규동 감독님이 대리 수상하시겠습니다. 트로피를 들고 마지막까지 얌전히 서 계시기 바랍니다.

민규동 작품 <윤희에게>, 성명 김희애. 벡델데이2020의 비전과 함께하는 감동적인 연기로 우리를 매혹시킨 배우 김희애 님께 존경과 찬사를 보냅니다. 이에 '올해의 벡델리안 배우상'을 드립니다.

변영주 이번 벡델초이스10 선정 대상작은 아니었지만, 김희애 배우의 20년 만의 영화 복귀작이었던 <우아한 거짓말>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며 김희애 배우의 위풍당당한 변신이 돋보였던 <허스토리> 모두 벡델 테스트의 기준을 훌쩍 넘어선 영화들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셨지만 '벡델데이라는 영화계의 뜻깊은 행사에, 자신이 가장 아끼는 작품들 중 하나인 <윤희에게>로 불러주어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벡델리안 김희애 씨가 출연한 JTBC <방구석1열> 특집이 지난 주에 방영되었는데요, 2회차 방영이 결정돼 이번 일요일인 9월 6일 오전 10시 30분에 두 번째 벡델 특집 <방구석1열>에서 김희애 배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드디어 성대한 시상식을 마쳤습니다. 그럼 이제 세 분의 벡델리안과 함께 본격적인 영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면 될까요?

김보라 여기 질문지들을 모아 놓은 보드가 있는데요. 저희와 벡델리안 분들이 여기 포스트잇을 하나씩 떼어가며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 배우, 작가, 제작자, 그렇게 답변자가 정해져 있는 질문들과 공통적인 질문이 섞여 있습니다. 공통적인 질문의 경우 자유롭게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변영주 네 그럼, 제가 먼저 질문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자와 벡델리안들이 포스트잇 떼면서 질문 읽기. 다른 벡델리안들에게도 적절히 답변 유도 ****

변영주 이상으로 벡델데이2020의 2부 벡델리안과의 대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의 벡델리안과 저와 함께 사회를 봐주신 김보라 배우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벡델리안 세 분의 마지막 인사를 들어보겠습니다.

김보라(감독) *현장 답변*

이보람 *현장 답변*

김지혜 *현장 답변*

김보라 저도 올해 벡델데이2020을 심사위원부터 행사 진행까지 하며 느낀 바가 많습니다. 벡델초이스에 선정되는 영화에 꼭 출연해 벡델리안이 되면 좋겠다는 꿈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올해 벡델데이2020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행사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지만 내년, 내후년 더 큰 행사와 영화제로 만나보고 싶다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변영주 김보라 배우가 얘기한 것처럼 벡델데이2020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벡델 테스트와 벡델데이2020의 비전이 새로운 한국영화를 꿈꾸는 많은 이들에게 크나큰 영감의 원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쉽게도 오늘 함께하지 못한 벡델리안 김희애 씨가 출연한 JTBC <방구석1열> 벡델 특집 2회차 방송은 이번 주말 일요일에 꼭 보시고요. 우리는 내년에 다시 만나기로 하죠. 감사합니다.

Appendix

04

보도 자료

NEWSLETTER 01

벡델데이 2020

모두의 영화를 위한 새로운 눈!
'벡델데이 2020' 안내
벡델초이스10 & 벡델리안 선정 발표

'양성평등주간' 첫 영화 관련 행사이자 한국영화감독조합이 주관을 맡아 기획된 '벡델데이 2020'은 향후 한국영화가 보다 평등한 성별 재현을 하도록 돕고, 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도록 응원하고자 한다. 동시에 영화 내적인 스토리텔링의 양성평등은 물론,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업계의 체질 개선을 통해 고용의 양성평등을 이루는 것을 독려하고 정책적 고민을 함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벡델데이 2020'이라는 행사명은 영화의 양성평등을 가늠하는 지수로 널리 알려진 '벡델 테스트'(Bechdel test)에서 가져왔다. 미국의 여성 만화가이자 커밍아웃한 레즈비언인 앨리슨 벡델이 고안한 벡델 테스트는 작품 속에 여성이 얼마나 빈번하고 주도적인 캐릭터로 등장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으로, 테스트가 만들어진 1985년 이후 지금까지 세계 영화계의 뜨거운 화두가 되어 왔다. 벡델 테스트의 기준은 아래 세 가지이다.

첫째, 영화 속에 이름을 가진 여성 캐릭터가 최소 두 사람이 나올 것
둘째, 이들이 서로 대화를 나눌 것
셋째, 해당 대화 소재나 주제는 남자 캐릭터에 관한 것이 아닐 것

단순해보이는 기준이지만, 한국영화계를 되돌아보면 이를 충족하는 영화의 수가 사뭇 부족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몇 해 사이 영화를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관객의 흐름이 뚜렷이 체감될 만큼 국내 관객 문화는 빠르게 변화해 오고 있다. '벡델데이 2020'은 이러한 관객 변화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한국영화계가 관객의 기대를 더욱 민첩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양성평등의 시선으로 바라본 영화와 영화인을 선정했다.

'벡델초이스10'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개봉한 한국영화를 대상으로, 배우와 감독, 평론가로 이뤄진 9인의 심사위원이 벡델 테스트를 기본 바탕으로 자체 심사 기준을 추가해 양성평등, 나아가 영화 다양성을 진작하는 데 기여한 한국영화를 선정한 것으로 <벌새> <윤희에게> <미성년> 등 지난해 화제작부터 올해 개봉해 3만여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아구소녀>까지 모두 10편이 선정되었다. 또한 영화를 통해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데 공헌한 영화인을 각 부문별 '벡델리안'으로 뽑았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이 된 이들은 <벌새> 감보라 감독, <미성년> 이보람, 김윤석 작가, <윤희에게> 김희애 배우, <우리집>을 만든 아트ATO의 김지혜 대표다.

빠르게 변화한 시대와 관객들의 눈높이에 발맞춰 한국영화계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줄 '벡델데이 2020'는 '양성평등주간인 9월 초 심포지엄과 라운드테이블(비대면-온라인 중계)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벡델초이스10>

<벡델리안>

<본심 심사위원>

INFORMATION

DOWNLOAD

글자료 사진자료

NEWSLETTER 02

벡델데이 2020

양입성 감독, "올라는 벡델에게도 투전하고 싶다!"
'벡델초이스10' & '벡델리안' 추천사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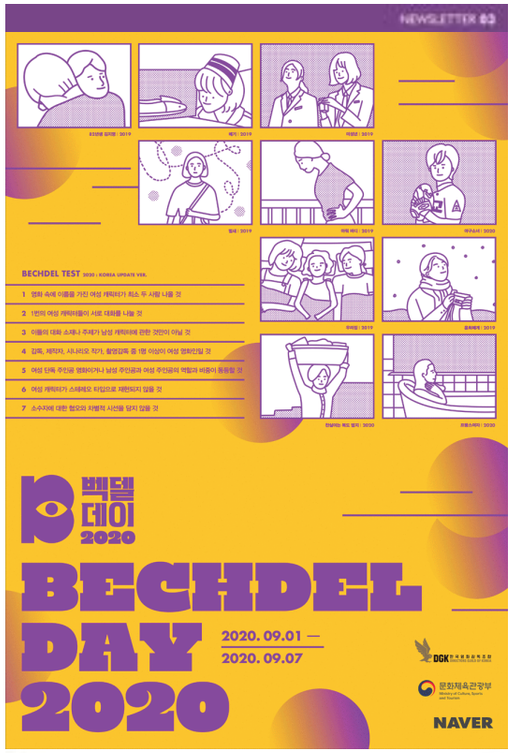


INFORMATION

DOWNLOAD

글자료 사진 자료 벡델리안 추천사 전문 벡델초이스10 추천사 전문

LAST PRESS





이번 주 8월 30일(일) 오전 10시 30분 방송 예정인 JTBC <방구석1열>은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벡델 특집'으로 꾸려진다. <윤희에게>와 <우아한 거짓말>이 '명작 매치'를 펼치며, '벡델리안' 김희애 배우가 '벡델 전도사'로서 스페셜 게스트로 출연할 예정이다. 특히 <윤희에게>는 '벡델데이2020'이 선정한 '벡델초이스10' 중 한 편이기도 하여 더욱 다채로운 이야기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방구석1열>의 MC 봉태규는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젠더 교육을 잘해서 성역할에 대한 편견 없이 키우는 게 꿈이다.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벡델 테스트를 알게 되고 '벡델데이2020'이라는 행사를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벡델데이2020'의 행사 취지에 공감했고, '벡델리안'으로 초청된 배우 김희애는 **"'벡델초이스10'에 선정된 <윤희에게>는 내가 출연한 작품들 가운데 가장 예적이 가는 영화 중 하나다.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부터 욕심나서 놓치고 싶지 않은 작품이었다. 배우로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마침 영화계에서 준비한 '벡델데이 2020'이라는 뜻깊은 행사에도 함께할 수 있게 됐고, 평소 즐겨 보던 <방구석1열>에서 <윤희에게>와 <우아한 거짓말>이라는 내 작품들을 다뤄 준다고 해서 정말 기뻤다"**는 소감을 밝혔다.









'양성평등주간' 사상 첫 영화 관련 기획으로 주목받고 있는 '벡델데이2020'이 뜻깊은 공식 행사를 마련했다. '양성평등주간'인 9월 4일(금) 오후 7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방송될 이번 행사는 크게 1부 심포지엄과 2부 라운드테이블로 구성된다.

먼저 **1부 심포지엄은 "한국영화, 벡델테스트와 만나다"**라는 주제로 벡델테스트를 통해 지난 10년간의 한국영화를 돌아보고, 양성평등을 지향하기 위해 한국영화계가 풀어야 할 과제를 모색한다. 조혜영 영상예술학 박사가 한국영화 속 양성평등 현황을 분석한 '스크린 안과 밖 모두의 성평등을 위하여'를 발제하고, <우리집>의 윤가은 감독과 <미성년>을 제작한 이동하 영화사레드피터 대표가 함께해 여와 관련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을 나누는 자리를 갖는다. 또한 KAIST 인터랙티브 미디어랩(지도교수 이병주)이 벡델테스트의 정신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벡델초이스10'의 성별 재현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유하는 등, 다양한 각도로 벡델테스트와 한국영화의 접점을 분석해볼 예정이다.

2부 라운드테이블 "벡델리안과 차별 없는 영화를 말하다"에서는 먼저 영화를 통해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데 공헌한 부문별 영화인인 '벡델리안' 시상식을 진행한다. 이어서 '벡델리안'으로 선정된 <벌새>의 김보라 감독, <미성년>의 이보람 작가, <우리집>을 만든 김지혜 아토ATO 공동대표가 함께하는 '벡델리안과의 대화'까지 마련되어 있다. 변영주 감독과 김보라 배우가 모더레이터로 참여할 '벡델리안과의 대화'에서는 '벡델리안' 선정 소감과 함께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영화를 기획, 집필, 감독, 연기하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 왔는지 생생한 현장 경험담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영화계의 성평등을 위해 끊임없이 지켜보는 눈이 되어줄 '벡델데이2020'의 공식 행사는 9월 4일(금) 오후 7시,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방송으로 만나볼 수 있다.









벡델데이 2020

1985년생 벡델테스트,
2020년의 인공지능을 만나다!
9/4(금) '벡델데이2020' 특별 게스트로 AI 참석!

'양성평등주간'(9월 1일~9월 7일)을 맞아 9월 4일(금) 오후 7시 온라인 방송 예정인 '벡델데이2020'의 공식 행사에 AI가 패널 중 하나로 참여해 한국영화 속 양성평등을 진단한다.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 주관: 한국영화감독조합 | 기간: 2020년 9월 1일(화)~9월 7일(월)]

이주 특별한 '벨벨 심사위원' AI의 한판한 양성평등 재점검는?
KAIST 인터랙티브 미디어랩의 '벡델초이스10' 분석 공개.
9/4(금) 오후 7시 네이버 온라인 방송 통해 공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영화감독조합이 주관하는 '벡델데이2020'은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개봉한 한국영화 가운데 벡델테스트를 충족하고, 성평등과 다양성 진작에 기여한 영화를 꼽아 '벡델초이스10'으로 선정한 바 있다. 벡델테스트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①영화 속에 이름을 가진 여성 캐릭터가 최소 두 사람이 나올 것, ②이들이 서로 대화를 나눌 것, ③해당 대화 소재나 주제는 남자 캐릭터에 관한 것이 아닐 것. 하지만 이는 대사를 중심으로 한 분석으로 시각 예술인 영화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이에 '벡델데이2020'은 KAIST 인터랙티브 미디어랩팀에 연구를 의뢰, AI 분석을 통해 선정된 '벡델초이스10'을 보다 면밀히 살펴봤다. 연구에 사용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Face API는 사람의 얼굴을 감지해 알고리즘 분석을 하는 방식이라 캐릭터 분석에 보다 용이하다고 알려져 있다.

AI로 분석한 '벡델초이스10' 영화들은 여섯 가지 지표에서 다음의 특성을 드러냈다.

1. 결정적 대사들

2. 스크린 타임들, 성대결 시간 존재하들

3. AI의 결론들

4. 나의

5. 영화

6. 주관 등 심층적 탐류

INFORMATION

DOWNLOAD

DOWNLOAD

LAST PRESS



벡델데이 2020

바로 오늘 9월 4일(금) 오후 7시
'벡델데이2020' 공식 행사 개최!
네이버 V LIVE로 공개

'양성평등주간' 사상 첫 영화 관련 기획으로 주목받고 있는 '벡델데이2020'이 뜻깊은 공식 행사를 마련했다. '양성평등주간'인 오늘 9월 4일(금) 오후 7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V LIVE를 통해 방송될 이번 행사는 크게 1부 심포지엄과 2부 라운드테이블로 구성된다.

먼저 **1부 심포지엄은 "한국영화, 벡델테스트와 만나다"**라는 주제로 벡델테스트를 통해 지난 10년간의 한국영화를 돌아보고, 양성평등을 지향하기 위해 한국영화계가 풀어야 할 과제를 모색한다. 조혜영 영상예술학 박사가 한국영화 속 양성평등 현황을 분석한 '스크린 안과 밖 모두의 성평등을 위하여'를 발제하고, <우리집>의 윤가은 감독과 <미성년>을 제작한 이동하 영화사레드피터 대표가 함께해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을 나누는 자리를 갖는다. 또한 KAIST 인터랙티브 미디어랩(지도교수 이병주)이 벡델테스트의 정신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벡델초이스10'의 성별 재현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유하는 등, 다양한 각도로 벡델테스트와 한국영화의 접점을 분석해볼 예정이다.

2부 라운드테이블 "벡델리안과 차별 없는 영화를 말하다"에서는 먼저 영화를 통해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데 공헌한 부문별 영화인인 '벡델리안' 시상식을 진행한다. 이어서 '벡델리안'으로 선정된 <별세>의 김보라 감독, <미성년>의 이보람 작가, <우리집>을 만든 김지혜 아토ATO 공동대표가 함께하는 '벡델리안과의 대화'까지 마련되어 있다. 변영주 감독과 김보라 배우가 모더레이터로 참여할 '벡델리안과의 대화'에서는 '벡델리안' 선정 소감과 함께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영화를 기획, 집필, 감독, 연기하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 왔는지 생생한 현장 경험담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영화계의 성평등을 위해 끊임없이 지켜보는 눈이 되어줄 '벡델데이2020'의 공식 행사는 바로 오늘 9월 4일(금) 오후 7시,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방송으로 만나볼 수 있다.



"벡델데이2020" 행사 안내

- 일시: 9월 4일(금) 오후 7시

네이버 V LIVE 바로가기 >

행사 구성

1부 심포지엄 "한국영화, 벡델테스트와 만나다"

2부 라운드테이블 "벡델리안과 차별 없는 영화를 말하다"

INFORMATION

DOWNLOAD

LAST PRESS

7차



벡델데이 2020

"차별 없는 한국영화를 위하여!"
모두가 진심으로 뜨거웠던
'벡델데이2020' 성료!

'양성평등주간' 사상 첫 영화 관련 기획으로 눈길을 끌었던 '벡델데이2020'은 한국영화의 보다 평등한 성별 재현은 물론, 업계의 체질 개선을 통한 고용의 양성평등을 도모하는 데 그 목표를 두었다.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관객에게 다가가고자 지난 9월 4일(금) '벡델데이2020' 공식 행사를 비대면 온라인 중계로 진행했다. 조혜영 영상예술학 박사의 방대하면서도 심도 깊은 발제와 AI 분석, '벡델리안' 시상식과 함께 <우리집> 윤가은 감독, <벌새> 김보라 감독, <미성년> 이보람 작가, <우리집>을 만든 김지혜 아토ATO 공동대표, <미성년>을 제작한 이동하 영화사레드피터 대표와 모더레이터 변영주 감독, 김보라 배우까지 모두가 직접 겪고 들은 체험과 통찰을 아낌없이 들려줬던 '벡델데이2020'은 한국영화계의 생생한 민낯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을 미래를 동시에 보여주는 행사였다. **"이런 콘텐츠 기획해주셔서 감사해요"(네이버_이***), "꼭 다시보기 부탁드려요!"(네이버_*)** 등 중계 내내 실시간 댓글창에는 뜨거운 호응이 이어졌으며, **"벡델데이 브이 라이브한다. 나 왜 벅차오름"(트위터_@zzin***), "조혜영 평론가 발표 중 재시한 데이터들이 정말 흥미롭다"(트위터_@ijyg***), "내년 벡델데이 행사는 오프라인에서 열 수 있게 되길 그리고 힘든 시기에 여성 창작자와 관객 모두 무너지지 않기를"(트위터_@the3rd_r***)** 등 '벡델데이2020' V LIVE에 대한 소감과 통계 자료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크게 회자되는 등, 영화계 내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건강한 '담론 형성'에 적극 기여했다.

'벡델데이2020'이 선정한 배우 부문 '벡델리안'이자 '벡델 전도사'를 자처한 김희애 배우의 활약 역시 눈부셨다. 매주 일요일 아침 '아는 영화의 모르는 이야기'를 유쾌하게 들려주는 인기 영화 프로그램 JTBC <방구석1열>의 '벡델 특집'에 전격 출연해 8월 30일(일), 9월 6일(일) 2회에 걸쳐 대중과 만났다. 김희애 배우의 주연작이자 '벡델초이스10' 선정작인 <윤희에게>와 <우아한 거짓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던 <방구석1열>은 '벡델데이2020'과 벡델테스트 자체를 대중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긴 시간 '벡델데이2020'를 준비해온 민규동 조직위원장은 **"1년이 넘게 걸린 문화체육관광부와의 긴 대화 속에서 이 행사의 가치를 공유해 왔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기어코 치러내고자 노력한 모든 이들의 의지가 대단해 보였다. 방송과 심포지엄, 시상과 라운드테이블까지 첫해는 다채로운 접근을 시도해 보았고, 다음 해에도 지속될 수 있는 건강한 에너지를 느꼈다.** 물론 이런 리트머스 필터링 행사가 필요 없는 시점이 눈앞에 확 다가온다면 더 기분 좋은 일이긴 하지만..."이라며 행사를 종결하면서 느낀 소감을 전했다. 이하정 프로그래머는 **"올해 첫 화인 '벡델데이'를 통해 영화 콘텐츠의 성인지 불균형이 단순히 영화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영화산업의 성평등과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 사회와 떨어지지 않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첫 회에 이어 내년에는 온라인 행사뿐만 아니라 관객과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오프라인 행사와 상영회도 마련되어 더 많은 대중이 행사의 취지에 공감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행사의 의미와 다짐을 밝혔고, 주성철 프로그래머는 **"불금에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동시 접속자 수와 채팅창을 통해 활발하게 의견을 주고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록 올해는 비대면 온라인 행사로 열릴 수밖에 없었지만 내년에는 보다 알찬 프로그램과 보다 긴 기간의 영화제로 만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며 내년도 행사를 향한 소망을 내비쳤다.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올해 처음으로 기획된 '벡델데이'는 향후 한국영화가 보다 평등한 성별 재현과 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앞으로도 그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다.

